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사람 좋은세상

2013.

07 + 08

CoverStory

이성림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의 의장

남북 문화예술인들이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길 열어갈 터

머리글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월프로그램

Issue&Seminar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2013 독서 오픈세미나
차동엽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Hot&Issue
제주포럼
런삼성포럼

Special Focus
제1회 CEO저혜삼책

2013제주 CEO섬머포럼

회원&연구원소식

Membership Day

아카데미뉴스

발행인편지

법률칼럼
노만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비타민

명사초청특강
안병수 후델식품건강교실 대표

김병일칼럼

표지인물 이성림 의장 사진 오경근 원장

통권 제118호(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3년 7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For all your memorable moments

LOTTE HOTEL JEJU



Infinity Edge Pool

POOL VILLA SUITE Package

풀 빌라 스위트 객실 1박 + 2인 조식 + 미니바 All Free
+ 서머 시그니처 칵테일 2잔 + 올레 와이너리 2인 이용권
+ 웰컴 플라워&케이크 + 픽업&샌딩 서비스

120만원부터 (9월 15일까지)

Hello Kitty Character Room



MY LITTLE PRINCESS Package

프린세스 키티 객실 1박 + 3인 조식(성인2, 어린이1)
+ 스와로브스키 스톤 헬로키티 팔찌
+ 영국 코스메틱 '러쉬' 기프트 박스

51만원부터 (8월 30일까지)

※ 상기 요금에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스마트폰 ‘창조’의 빛과 그림자

2013년 한국사회 풍경에서 중심은 스마트폰이다. 대다수 사람이 손에 꼭 거머쥐고 다닌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다. 청소년만이 아니다. 출퇴근 길 지하철은 스마트폰에 몰입한 승객들로 넘친다. 저마다 눈 번득이며 '시선 집중'이다.

기실 최첨단 미디어 활용은 경쟁에 필수다. 21세기 들어 IT업계가 '창조'한 스마트폰은 융합미디어라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온 모든 미디어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게 마련이다. 적잖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창조적 일'을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야구중계를 즐긴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안은 그 생생한 증거다.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단순히 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20세기 중반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언론학자들이 우려한 'TV중독'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그렇다. 게임에 몰입하는 청소년을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독 현상이 퍼져가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학자들이 분석하듯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반복된 생활, 게다가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기성세대와 달리 음주와 유흥이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경쟁에 내몰린 자신들의 일상에서 밀려오는 지루함, 곧 권태를 풀어갈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게임이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데 있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니콜라스 카(Nicholas G. Carr)가 인터넷이 '피상적인 사람들'(The Shallows, 2010)을 양산한다고 경고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반드시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찍이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이 텔레비전에 대해 우려한 '죽도록 즐기기의' 극한형태가 스마트폰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즐거운 게임으로 권태를 벗어나려는 중독과 전혀 달리 권태를 이겨내는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과 견주어 스마트폰은 비슷한 속성을 지녔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미디어다. 텔레비전이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가는 일방향 미디어인데 반해 스마트폰이 근거한 인터넷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쌍방향 미디어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인터넷이 권태와 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로 들고 있듯이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있는 미국도 인터넷이 사람을 '더 멍청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슬기롭게 만드는가(dumber or smarter?)'를 주제로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릇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찻소가 먹으면 유유가 된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피상적인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 앞에 과연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조직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또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 '자기 주도 학습'이 개인 수준은 물론 가정과 기업, 국가 수준에서도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창조 경제'가 시대적 화두이기에 더욱 그렇다. ■■■



● 손석춘 교수
1960년 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논설위원 시절에 대학생들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언론인'(한국대학신문), 언론인들로부터 '존경하는 언론인 5인'(미디어오늘), 국내 10개 분야 전문가 1,040명으로부터 '좋아하는 언론인 5인'(시사저널)에 꼽혔다. 2005년 싱크탱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을 창립해 원장과 이사장으로 일하며 국내 싱크탱크 순위 5위로 올려놓았다. 2011년부터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JULY

인문예술포럼4

G7 Through Korean Wave

제1792회 7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겨울연가'의 온사마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한류는 우리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의 신호 정도에만 여겨졌다. 그러던 한류가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등 다양한 국가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전 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한류는 문화코드를 넘어 외교의 새로운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류로 발생한 경제효과가 2011년 기준 연간 5조 원에 달하는데, 한국상품 구매, 한국 방문 외국인 증가, 세종학당 확대 등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류는 흐름이 아니라 잠깐의 유행으로 그칠 수도 있다. 이에 한류의 뿌리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해 낸 문화업계와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나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공채 기자 출신으로 KBS 사장을 역임한 김인규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을 초빙해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의 힘의 원천과 성공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한류를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주장의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인규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 前 KBS 사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 1973년 KBS 공채1기 기자 입사, 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보도국장, 뉴미디어본부장, KBS 사장
-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장
- <상훈> 제40회 국제예미상 공로상
- <저서> 드라마스캔들

제2회 CEO지혜산책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7월 9일(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룸

리더십의 방향과 모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특히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 변화의 흐름이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자라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가치,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하고,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과 코칭이 중요하며, 항상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CEO지혜산책' 7월 강연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송영수 한양대 교수를 모셨다. 경영자들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직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호통이 아닌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지, 어떻게 위기를 직감하고 변화와 혁신에 올인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안내]

▶ 참가비 - CEO지혜산책 회원:무료 / 비회원:15만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회원:5만원(2회 제한)

▶ 참가신청 - 이슬기 사원 T.070-4726-3014

송영수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 중앙대 교육학과 졸업
- 美 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 석·박사
- 삼성생명 교육담당, 인사담당
- 삼성인력개발원 팀장
- 한국기업교육학회 부회장
-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 리더십학회 부회장, 회장, 한양대 리더십센터장
- 한국산업교육학회 회장,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대통령실 위민포럼 자문위원

융합과학청색기술포럼5

브리콜레르 – 누구나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제1793회 7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한 명의 인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적 있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한정된 지식이나 정해진 매뉴얼만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다양한 역량을 갖춘다고 스펙을 쌓아보지만 그것도 천편일률적이어서 차별화가 쉽지 않다. 판에 박힌 스펙도, 협소한 전문성도 필요 없는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는 한 분야만 맴도는 전문가(specialist)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인(whole Man)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세상에는 똑같은 정보와 지식으로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 가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잠재력으로 1만 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초인적인 사람들, 머릿속 생각을 실천에 적용해 놀라운 성과를 내는 실천적 지식인,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브리콜레르(bricoleur)' 사고력이다. '손재주꾼'으로 번역되는 브리콜레르는 보잘 것 없는 판자조각, 돌맹이, 못쓰게 된 톱이나 망치를 가지고 쓸 만한 집 한 채를 거뜬히 지어내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최근 '브리콜레르'라는 책을 출간한 한양대 유영만 교수를 초빙하여 사회 각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브리콜레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브리콜레르 인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경영포럼7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경제 전망

제1794회 7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성장둔화세를 겪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양조치와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또한 지속적인 저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실업률이 7%로 하락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매달 150만 채로 정상화될 경우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치는 내년 상반기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약 3조 달러 이상의 돈이 한국에도 대거 유입됐는데, 이 자금이 유출될 경우 외환부족으로 환율이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어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와 투자, 수출이 위축돼 실물경기도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정식 연세대 교수를 초빙하여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줄기전략, 그리고 중국 경제의 침체가능성 등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 한양대 교육공학과 졸업, 한양대 교육공학 석사
 - 美 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 삼성인력개발원 기획개발팀, 삼성경제연구소 인력개발원 근무
 -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과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서울권역
 - e-Learning 지원센터장,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
- <상훈> WILL 학습조직 대상, 플로리다주립대 Outstanding Alumni Award
 <저서> 상상하여 창조하라, 청춘경영, 지식생태학지식기반사회를 위한 포스트 지식경영,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브리콜레르 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경제학 석사
- 美 클레어몬트대 경제학 박사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 영국 캠브리지대 국제학센터 객원교수
-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국 자문교수
-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 국제분과위원장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한국경제학회 차기회장
-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상경대학장, 경제대학원장

AUGUST

건강포럼1

척추를 바로 잡아야 건강이 보인다

제1795회 8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현대사회에서 척추질환은 국민병이라고 불릴 만큼 발병률이 높다. 놀라운 사실은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허리통증은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허리 통증발생률은 1950년대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20년대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이후 사람들은 골반을 내밀고 목을 앞으로 기울이며 어깨를 둥글게 구부린 채 생활하는 등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흔히 척추교정을 이야기한다. 척추교정 방법에는 타인에 의한 척추교정과 자기 스스로 하는 척추교정 운동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척추질환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허리통증과 자세교정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몸매관리,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운동법이 'SNPE(Self Nature Posture Exercise)바른자세 운동'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오랜 세월 허리통증으로 고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아교정의 원리를 응용해 척추와 골반 교정에 탄력성 있는 벨트와 비탄력성 벨트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해 척추 골반교정 운동을 창시해낸 바른자세학회 최중기 회장을 초빙하여 스스로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회복 운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중기 SNPE바른자세학회 회장



- SNPE(Self Nature Posture Exercise)바른자세 창시자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 숙명여대 SCUFU 미래문화 최고경영자과정 특강강사
- 동국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 경기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 도서출판 바른몸만들기 대표

<저서> 척추를 바로 잡아야 건강이 보인다,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노하우

제3회 CEO지혜산책

기업의 마케팅전략

8월 20일(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비바체룸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마케팅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모든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날이 갈수록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의 저자인 나중호 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모든 부서, 모든 임직원의 전방위 마케팅을 강조한다.

모든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외치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내부직원들의 내부만족에는 인색하다. 나 원장의 회사조직도는 Top이 맨 위 또는 중심이 아닌 항상 Bottom이다. 가장 중요한 고객은 내부하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이 서있을 때 고객중심, 고객만족이 가능하다는 게 나 원장의 지론이다.

두 번째 CEO지혜산책 강연은 나중호 원장과 함께 마케팅의 본질, 고객만족 마인드, 상식을 깨는 아이디어 사례, 성공이야기, 차별화 이야기 등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통해 우리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고, 이기는 마케팅을 위한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갖는다.

[참가안내]

- ▶ 참가비 - CEO지혜산책 회원: 무료 / 비회원: 15만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회원: 5만원(2회 제한)
- ▶ 참가신청 - 이슬기 사원 T.070-4726-3014

나중호 강소기업연구원 원장



- 美 피츠버그대 경영학 박사
- 한경희생활과학 부사장
- 엔프라니 대표이사
- Q&A 마케팅센터 대표

글로벌포럼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미래, 그리고 평양과기대의 역할

제1796회 8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뱌뷰룸

2013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국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상호견제와 갈등에 더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맹, 파트너, 협력으로 신질서 구축을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미중일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협조를 통해 공생의 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역사 발전의 새 장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 '통일'이라는 미래를 열어갈 과제를 안고 있다.

동북아 협력을 위해서는 외교·안보적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우호 증진과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 합작 교육특구로 승인·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요청으로 2009년 개교한 평양과기대는 북한의 국제화와 변화를 이끌 경제기술관료 육성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평양과기대는 내년 나진·선봉지구에 분교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남북 화해협력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범한 사업가로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건립에 동참하면서 현재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이승률 부총장을 초빙하여 기업인으로, 교육행정가로, 동북아평화운동가로서 바라보는 동북아의 미래 전망과 평양과기대가 남북통일에 기여할 교육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승률 평양과학기술대학 대외부총장



- 동국대 철학과 졸업
 - 中 연변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中 중앙민족대학 법학 박사
 - 반도환경개발(주) 회장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이사
 - 평양과학기술대학 건축위원장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
 -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대외부총장
 -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 <저서> 원원 패러다임, 동북아시아와 조선족, 누가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 초국경 공생사회 외

경제경영포럼8

변화의 중심에 서라

제1797회 8월 2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의 변화 속도는 시속 100마일'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기업이 창업하고 성공할 확률이 1년 후는 60%로 높지만 100년 후에도 존속할 확률은 0.03%로 극히 낮다. 한때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가 몰락한 닌텐도, 노키아, 코닥 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혁신에 힘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비올 때 중소기업에 우산을 씌워주는 은행이 되겠다는 기업은행은 경제위기 때마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싶어 하는 1위 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조준희 행장 취임 당시 연 17%였던 중소기업 대출 최고 금리를 올해 9.5%까지 낮춰 임기중 중기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조 행장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타파하고 형식주의를 지양한 채 정도경영과 내실경영을 다지는 한편 이윤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은행을 만드는데 주력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은행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10년 12월 기업은행 최초의 공채 출신 은행장으로 취임한 조준희 행장을 초빙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은행의 상생경영과 금융환경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준희 IBK기업은행 행장



- 한국외대 중국어과 졸업
- 1980년 기업은행 입행, 동경지점장, 경인지역본부장, 종합금융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개인고객본부장, 전무이사 外美 <상훈> 금융업무유공 산업포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표창, 동탑산업훈장 外

제178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벽을 문으로 - 국가발전 전략과 인천의 실천전략

대한민국은 지금 트리플 1조 시대를 맞고 있다. GDP가 1955년 14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116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 무역규모는 2011년 1조 823억 달러로 세계 8위, 시가총액은 2012년 1조 2650억 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서긴 했지만 경이적인 성장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매출에서 삼성(1500억 달러)은 소니(880억 달러)를 앞섰고, 2012년 판매량에서 현대기아(712만대)는 포드(566만대)를 앞섰다. 코카콜라 시장점유율이 19%에 불과한 나라는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 맥도날드는 롯데리아에 밀리고 있고, 월마트는 아예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한미FTA 협상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한국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개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들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개방하면 싸워서 이겼지만 폐쇄하면 무너졌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바다를 경시하는 공도(空島)정책을 21세기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트리플 1조시대, 개방에 답이 있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역사적인 리더들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모두 공과가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수용하고 나쁜 것은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립한 공이 있다. 김구 선생에게 아쉬운 점은 5.10선거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시 김구 선생이 5.10선거에 참여했다면 5월10일은 아마 '선거의 날'로 기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 출신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산당 활동을 했지만 전향해 건국준비위원회와 5.10선거에 참여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수배령까지 내렸다.

그랬던 분이 이승만 정권의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되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주도했다. 죽산 선생이 농지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6.25전쟁 때 남로당이 힘을 못 쓰고 전쟁에 실패한 것이다. 만약 농지개혁을 하지 않고 봉건적 지주-소작 관계를 유지한 채 전쟁이 일어났다면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남로당이 지리산에 고립되지 않고 소작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후방 전선을 교란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가 많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과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특히 부가세 도입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장식적 의미의 헌법'을 '살아 있는 헌법'으로 만들었고,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도록 만들었다. 또 초기 IT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6.15시대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계기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는 분위기와 법적 제도를 만들었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했다. 나는 한미FTA 추진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이것을 부끄러운 과거처럼 지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부정이다. 한미FTA는 폐기가 아니라 보완을 해야 할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내세운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녹색성장의 개념이 지금은 OECD 국가보고서에 공식적으로 Green Growth라는 개념으로 채택될 정도로 국제적인 언어가 되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없애버렸다.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계승하지 않고 잘한 것마저 부정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대신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최소 4% 경제성장 해야 고용 없는 성장 막을 수 있어

'지속가능 발전'은 21세기 인류문명의 공통 과제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재성장률이다. 거시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이자율을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10년 가까이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평균 4.3% 성장했는데, 세계 평균은 4.8%였다. 747(7% 성장, GDP 4만 달러, 7대 강국)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이 3%로 예

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2.5%를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세계의 평균을 낮추는 늪은 나라가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1955~1965년까지 10년 동안 1년 평균 110만 명이 태어났다. 현재는 1년에 48만 명이 태어난다. 문제는 한해 신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인력이 약 50만 명인데, 1% 경제성장에 75000~76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1% 성장에 10~12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갈수록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다.

신규 노동인력 50만 명 중 자영업자, 가족기업, 대학원, 군 입대 등을 감안해도 30만 여명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4% 성장률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저성장에 따른 것이고, 결국 청년실업은 결혼 적령기를 늦추게 되고 출산율을 저하시켜서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어느 후보도 선거에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 4대 질병 무상으로 등 분배에 대해서만 강조했지 자원조달 방법은 물론이고 성장률 목표와 제도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역대 대선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시장에 취임할 당시 인천의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50조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은 수도권 산업화의 기지였지만 공단들이 노후화되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이 됐다. 인천 남동공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8만 명인데, 기업체 수는 6천개로 1개 업체당 근로자가 14명이 채 안 되는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선 인천의 돌파구는 투자유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 초기에 취·등록세 등 일시적 지방세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하철 등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지속가능한 세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차일드케어, 잡케어, 에듀케어로 적극적 인천 추구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몽골, 카자흐스탄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자기 영토의 2배가 넘는 땅을 남미 등에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노동과 인력 문제는 마음만 열면 금방 답이 보인다.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었다. 국적과 관련해 속지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만약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고급 인력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우리도 동남아의 고급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분적 속지주의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천의 미래는 개방에 있다. 인천은 그동안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병인양요, 인천상륙작전 등 근현대사의 아픔이 모여있던 곳이다. 이런 과거의 인천을 적극적인 인천으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차일드케어, 잡케어, 에듀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산보육에 집중해 셋째를 낳으면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산증가율이 6.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현모인천(賢母仁遷)'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으로 이사를 오라'는 뜻이다. 그동안 인천은 교육여건이 좋지 못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중3만 되면 일산, 목동, 경기도 등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인천으로 이사 오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명문대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대학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체드워 국제학교, 조지메이슨·켄트대학교는 물론이고 중국의 청운대학교도 개교했다. 현재 5천억을 들여서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등을 만들었다. 앞으로 한 대학에 20억씩 5년간 1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세계 100대 랭킹에 들어가는 대학을 유치해 10개 대학 1만 명 규모의 캠퍼스를 완성하려고 한다.

인천에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만들 것이다. 인천 기술이력센터가 국정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1위를 했는데, 지난해 5천명을 교육시켜서 90% 이상을 취업시켰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 중 실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사람은 27%밖에 안 된다. 이런 대학제도는 없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키고 아카데미한 대학과 직업대학으로 나눠 전문화된 대학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더 이상 간판 따기 위한 대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는 늘어나고, 세수는 격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건설로 3각 파도를 맞았다. 늘어나는 지출구조와 세수격감, 부채가 그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여 쓰자'라고 해서 시장인 나부터 월급을 깎았다. 우리 시 공무원들 전체로는 100억을 깎았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비용도 2조5천억에서 1조7천억으로 줄였고, 리스 렌트 차량 등록 증가, 자산 처분 등으로 2조 정도의 부족재원을 확보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인천이 살 길은 투자유치, GCF 유치 및 FDI 전국 2위

지난해에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인 UN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 세계의 약 2만개가 넘는 국제기구 중 3000개 정도가 미국에 있고, 2000개 정도가 파리, 제네바 등에 있다. 한국에는 31개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인천 송도에 상주해 있다. 국제기구 본부가 하나도 없던 한국에서 GCF는 단군 이래 첫 국제기구 사령탑 유치라는 큰 성과물이다.

베를린에 통일 독일의 수도를 빼앗긴 본의 시장이 반기문 UN 사무총장만 만나면 건물을 공짜로 제공하면서까지 국제기구 유치 로비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천의 GCF 유치는 한 편의 기적 같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인천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월드뱅크 한국사무소도 유치할 계획이다. 막연히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 환경금융으로 특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이다.

인천이 살 길은 투자유치밖에 없다고 생각해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에 이어 FDI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Green필드 분야만 놓고 보면 서울을 제치고 인천이 1위다. 올해 1/4분기에 15억 달러를 유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 3억8000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이다.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 V-ENS가 입주했는데, 시장이 되자마자 삼성, LG를 유치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외국인들이 투자에 앞서 '삼성과 LG가 인천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과 LG를 유치한 후로 동아제약, 이랜드, 롯데, 엠코테크놀로지 등

의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를 시작했다. 인천에 금융이 없었는데, 하나금융에서 청라지구에 하나금융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기숙사, 골프장, 호텔, 데이터센터, 콜센터 등이 집합된 금융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이다. 국외기업으로는 BMW 드라이빙센터를 유치했고, 람보르기니도 MOU를 체결했다.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는 올해 착공하게 된다.

대한민국 리더가 갖춰야 할 4가지 조건

남북관계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 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라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절묘한데, 일희일비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장기적 전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

현재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인천이 투자한 단동 축구화 공장이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다. 평양에서 온 노동자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축구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는 앞으로 해주, 개성, 인천을 중국의 홍콩, 심천, 광둥처럼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박태환 선수를 영입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수영장에 '박태환수영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물론이고, 박태환재단을 설립해 후배들을 키울 예정이다. 배우 복서 이시영 선수, 축구계의 풍운아 이천수 선수도 영입했다.

오는 6월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0월에 전국체전이 개최된다.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운명인지 아시안게임이 한반도비핵합의를 했던 9월 19일 개막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10월 4일 폐막한다. 내년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반기문 총장 등 3자가 대면해 화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가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할까? 대한민국의 리더에게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외교능력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되새겨 보면 우리는 외교를 못해서 전쟁에 시달렸다. 그런 점에서 가장 무능한 왕은 선조였다. 일각에서 NPT 탈퇴와 핵 무장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없으면 성장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분배재원 확보방안이 절실하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된 비전이 필요하다.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바로 옆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외국 언론은 최근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판단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한국관광도 취소되고, 북한에 비해 가진 것이 많은 우리 사회만 골병이 들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의 능력이 필요하다.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이끌어갈 리더십이 절실하다. **KIM**



제178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구조조정 딜레마

창조경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비전이다. 전통적인 5개의 전략사업을 현상적으로 유지해서는 성장하는 중국에 어느 부분부터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선진국형에 가까운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가지기 위한 비전이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 개념은 창조는 붙었지만 경제발전에서 지난 40~50년 과정 동안 해왔던 것이다. 기업들도 이런 노력을 해왔고, 정부도 도왔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경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첫 번째가 새로운 아이디어이다. 발명활동과 지식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지식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

상품화는 기업이 시키는 것이다. 최초는 벤처비즈니스가 하고, 대량으로 바꾸는 것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해 나간다. 기업가정신은 상품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전체적으로 창조적인 새로운 지식이 많이 생성되고 상업화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는 면에서 과거와 다르게 좀 더 깊이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산업활동이 대두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들은 쇠퇴해서 사라져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새롭게 나타난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경쟁력 없는 기업에 미련 버려야 기업생태계 원활

어느 조직이던 구조조정이 중요하겠지만 창조경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다. 더 이상 경쟁력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기업에 미련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대출과 투자를 해주는 경우이다. 돈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돼야 삭이 트고 기업생태계가 생동감있게 움직여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금융현상을 위주로 이야기하겠다. 요즘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게 된다. 6월 현재 상장기업 1200개 중 18%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의 결산법인 수익성을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5.1% 적자기업 22%이다.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6.17%, 그 여파가 계속된 2009년 6.21%였는데, 2012년에 5.1%로 경제의 최전선인 기업의 수익성이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다.

적자기업 비율이 2008년 28.4%에서 2009년 17.7%, 지금은 25.5%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올해 적자기업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본다.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로 보면 뚜렷이 금융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12년 말 연체금액이 1조 2000억 정도이면 연체율 1.1% 절대치를 2011년과 비교하면 0.3%이다. 기업의 요주의 여신이 2011년 6조 200억, 2012년 7조 3000억에서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대출 총여신이 221조인데, 21%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기업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모니터링시스템 통해 객관적 평가 내려야

최근 구조조정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을 STX를 통해서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STX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이 안고 가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언제까지 적자보는 기업을 안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내년에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수익성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은행도 안고 갈 수 있다. 그럼 은행도 계속해서 STX에 상환가능성이 낮은 돈을 넣어야 한다.

그런데 STX의 경우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데, 산업은행이 적자를 보면 결국 증자를 해야 하고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과거 1997년 금융기관들이 서로 원가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장으로 무책임한 측면을 노출했을 때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이를 메꿔준 경험이 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회사채 의존성이 높은 기업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 금년 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는 32조이다. 그 중 신용등급 A 이하의 기업이 갚을 금액이 20조이다. 대상 기업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과거와 현재를 놓고 고민되는 문제를 짚어보자. IMF 시절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부도를 내는 현상이 생겼다. 당시 금융통화위원을 해서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기업이 괜찮은지, 한국경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현상 그대로를 이야기하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극복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도 경기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테니 우선 좀 안고 가자는 생각이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임기가 있다. 우리나라 장관이나 공

기업 대표들의 경우 임기 동안은 조용하기를 원한다. 1997년과 2013년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다르다.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수익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어 빚을 못 갚는 기업들이 주거래은행과의 관계에 있어 갑일까 을일까? 채권금액이 1조 이상 되는데,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 은행은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나빠진다. 그런 기업들은 은행에게 갑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나를 부도내? 나만 죽어? 당신들은 괜찮을까?' 이런 현상이 일부 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실무책임자들이 일이 터지니까 무서워서 끌어안고 가고 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세계가 흔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융시장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기업 모니터링시스템이 약하다.

웅진그룹이 얼마 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채권은행들이 기업유동성, 수익성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고 본다. 그 가운데 기업은행은 웅진그룹이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순간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액 회수했다. 이렇게 은행이 움직여주고 기능을 해야 한다. 함부로 빌려서 함부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해줘야 한다.

그럼 다른 은행들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STX의 경우에도 국민은행은 채권에 대해 빠른 규모로 회수를 해왔다. 지금은 아주 적은 금액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이 STX에 대해서 1조가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실화위험에 놓여 있다.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의 차이가 뭘까?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 보증 과정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기업에 가능성 남았을 때 구조조정 해야

1997년과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의 M&A시장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문제이다. 인베스트먼트뱅크라고 불릴만한 금융회사가 존재하지 않기에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private equity fund)가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M&A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도 제약이 많다. 구조조정이 되려면 생명이 붙어있을 때,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M&A시장에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들이 인수해서 자금을 투입해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그것이 인베스트먼트뱅크와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의 역할이다.

커머셜뱅크와 인베스트먼트뱅크의 차이가 있다. 커머셜뱅크는 이자가 목적이지만 인베스트먼트뱅크는 위험을 감수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을 볼 때 논의 차이는 커머셜뱅크는 이자가 목적이기에 기업이 죽을 때까지도 이자만 나오면 일단 가만 놔둔다. 인베스트먼트뱅크

는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사전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기회를 잘 봐야 하이리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M&A 시장에서 키 플레이어라 되는 것이다. 우리는 M&A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흐름을 보면 외국계 자금 중 장기투자가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투자 성격을 가지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단기 성향머니 성격의 외국자금과 국민연금이 대체하고 있다. 핫머니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자금이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생활을 담보하고 하고 있는데, 외국계 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국민연금이 일부 막아주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산업은행의 역할이다. 산업은행은 과거 개발연대에서 소위 투자촉진을 위해서 투자금융을 목적으로 만든 은행이다. 정책금융공사와 나누어져 있지만 정책적 목적의 금융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커머셜뱅크의 기준으로 볼 때 어려워지는 은행들이 산업은행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업성, 유동성 면에서 기업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상업은행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산업은행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산업은행은 부실을 각오하고 그 기업과 거래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 중에 일부인 우리은행, 농협이 STX의 부실채권이 1조가 넘는데, 우리은행도 실질적 국가소유이고, 농협 금융부문 또한 철저한 상업주의라고 볼 수 없는 금융회사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세금으로 막아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외국계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대체한다거나 산업은행으로 부실기업이 거래선을 바꾸는 현상 등이 많다면 고민을 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 환경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여기에서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5월 무디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전망한 것이 가장 최근이다. 네거티브아웃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상장기업의 수가 2011년 25%, 2012년 32%에서 금년 4월에는 38%였다.

국제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데이터가 신용평가회사가 만든 데이터이다. 양적 완화조치, 아베노믹스의 영향도 있고 복합적이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을 안 좋게 보는 기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던 시점보다도 금리가 더 올라갔다. 우리끼리는 적당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만 넘어가자. 내년에 잘 할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폐쇄경제가 아니고 자본시장이 열려있는 구



조이다. 외국계 투자자가 우리가 잘못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한국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터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슈를 제기하고 싶다. 과거의 우리 구조조정은 잘못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과연 기업과 은행이 잘못된 것을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서 금융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더 이상은 국민세금으로 문제해결을 해서는 안 되고,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베일인(bail-in, 손실참여)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에 의존했던 패턴을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줘야 한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제도적으로 세팅해 나가야 한다.

IMF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베일인 패러다임으로 가려면 국회나 정부에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베일아웃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STX의 경우 산업은행이 잘 버티어줬다. 산업은행이 인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용기이다. 정부 관료들의 입장에서서는 맘에 안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자기책임이 자본주의의 기본원칙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은 자기책임이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기가 책임

지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모두가 자기 잘못을 남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자기책임을 스스로 지는 풍토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분식회계를 했다거나 조세피난처에 공금을 빼놓은 기업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 달라. 우리는 종업원이 만 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이제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세금을 몇몇 이해당사자들이 즐기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론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1997년과 다른 것은 한국경제의 흡수능력이 커졌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때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모든 것이 잘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의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연구 중이다. 연구의 핵심은 당사자간 해결의 과정에서 사인이 너무 확대되어 금융시장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혼란스런 경우 경제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인을 주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개런티시스템을 깔아두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오늘 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이슈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토론한 우리사회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KMI**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내게 온다

차동엽 신부와 함께 한 '희망의 귀환'

밀리언셀러 <무지개 원리>의 저자로 대중에게 친숙한 차동엽 신부가 최근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동원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신간 <희망의 귀환>을 들고 돌아왔다. 2013년 첫 번째 오픈세미나는 치유의 멘토, 희망의 멘토 차동엽 신부로부터 신간 <희망의 귀환>을 중심으로 시련과 역경을 넘어 희망을 부르는 나침반 같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5월 29일(수)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본원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일반인 등 150명이 참석해 우리들 가슴 속 숨어있던 '희망'을 끄집어 내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앞서 정민화 소프라노가 재능기부로 무대에 올라 정겨운 선율의 가곡을 들려줘 강연장 분위기를 띄워주었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8년간 경영자들을 위한 조찬세미나를 매주 진행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자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해왔다"며, "회원사 임직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오픈세미나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왜 '희망의 귀환'인가? 괴테는 <경고>에서 '어디까지 방향하며 멀리 가려느냐? 보아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다. 행복을 잡는 방법을 알아두어라. 행복이란 언제나 네 곁에 있다'라고 했다."

차동엽 신부는 지금 이 시대 왜 '희망'이라는 아이콘을 들고 나왔는지 괴테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지난날 오직 성공만을 향해 질주할 것을 종용해 왔다. 이로 인해 행복, 기쁨, 사랑, 평화 등 우리네 삶의 본질적 목표가 경제 및 출세 논리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피로, 과로, 좌절, 우울증 등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지금 '피로사회' 증후군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증거로 차 신부는 이 시대 우리의 마음 지형을 예로 들었다. 2030세대는 비정당한 경쟁사회의 '쓴맛', 40세대는 '피로 및 노쇠' 증후군, 5060세대는 인생 메이저리그와의 결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게 희망이 오고 있다

"꿈을 접은 그대, 그만 일어나라. 꿈은 꿈을 꿀 때 그 효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세상에 치이고 치이다보니 희망이란 단어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러나 희망본능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꿈을 접는 순간에도 꿈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희망 끈을 놓는 순간에도 희망은 우리 곁에 있다. 그러므로 절망은 오히려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꿈을 접었노라"는 선언은 자기기만이며, "더 이상 희망을 믿지 않겠다"는 고집은 부질없는 자가부정이라는 것이 차 신부의 주장이다.



▲ 인사말 하는 장만기회장



▲ 재능기부로 무대에 오른 정민화 소프라노



▲ 희망 멘토 차동엽 신부



▲ 가슴속 희망을 이야기하는 차동업 신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 때 절망하고 지친 국민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라고 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할 때 희망이 온다는 말이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자

"역사 이래 꿈 시장에 불경기란 없었다.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청춘의 재산은 꿈이다.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 자체가 지니는 힘을 빌리면 된다."

19세기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대에게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아군이 있지 않은가. 청춘이라는 벗이!"라고 했다. 꿈을 가진 청춘은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고, 꿈 시장에 불경기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차 신부는 오기(傲氣), 호기(浩氣), 강기(剛氣)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정신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희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 있는 '신적인 힘'이다"라고 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의 말처럼 자주, 선명하게,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바람의 법칙을 강조했다.

미국 인디언 속담에 '같은 말을 2만 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은 현



▲ 강연 후 저자 사인회

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차 신부는 "희망의 뺑쟁이가 돼라. 꿈의 허풍을 떨어라. 꿈을 떠벌리고 다녀라. 언젠가는 스스로 놀라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누적의 법칙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유쾌한 희망지혜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희망은 공짜다. 배경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희망의 해는 공평하게 비춘다. 시간이 없다고 넋두리하지 마라, 희망은 무한에 열려있다."

희망은 공짜니 고수들의 지혜를 훑치라는 것이 차 신부의 조언이다.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 희망을 품고 또 품어보라는 말이다.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조지프 애디슨은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죽마고우로,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신증을 형님으로,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으라"라고 했다.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스페로 스페라 : Spero, spera)"

차 신부가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던진 메시지이다. 희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공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해서 인지 귀찮아서인지 희망을 품지 않는다. 희망은 정말 가까운 우리 곁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운명인데도 말이다. ■■■



▲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 오픈세미나



▲ 강연 후 스탭들과 함께

통일의 완성은 문화통일이다

남북 문화예술인들이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길 열어갈 터

이성림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의 의장



사진: 오경근 원장



◀ 6월 21일 열린 남북예총 창립대회



▲ 4월 1일 남북예총 발기인 대회

남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발판마련과 한민족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를 창립했다. 지난 6월 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국내 문화예술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북예총은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추대했다. 이 의장은 권영걸 전 서울시 부시장을 수석부의장으로, 김일호 경기문화콘텐츠기업협의 회장, 배우 이정길을 각각 부의장으로 위촉했다.

이 의장은 창립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문화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사절단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간 갈등해소와 긴장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치적·경제적 관점의 통일이 아닌 남과 북이 가슴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반도의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예술을 통해 남과 북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해외공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지닌 아픔을 알려 통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이성림 의장을 만나 남북예총의 창립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남북 정전협정 60주기를 맞는 해에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 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단체의 탄생 배경과 성격부터 소개부터 해주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이데올로기적 사상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된 이후 정치적 군사적으로 참여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국제 경기 최초로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선수단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동입장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합니다. 최근까지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지금 남과 북은 말 그대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감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공감대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세계무대로 다시 나오게 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민족적 관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감대라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나 경제,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예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과 소통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난 4월 1일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6월 21일 국내 문화예술인 1,000여 명이 모여 창립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공감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민족', '한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를 같이 부를 때는 '코리아KOREA'라고 합니다. 바로 이 KOREA가 공감의 아이콘, 평화의 아이콘입니다. 남과 북이 가슴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KOREA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한恨, 혼魂, 흥興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지닌 한, 한민족만 통하는 소통의 아픔과 기쁨의 혼, 다른 민족보다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대변하는 흥,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남과 북이 진정한 성취로 지속적으로 소통할



▲ 북한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강화에 주력해 온 이성림 의장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예총은 이 3가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거리감을 좁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코리아'를 물려주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제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 문화예술분야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들려주시죠.

남북예총은 사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접근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는 것, 남과 북이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할 것, 문화예술인들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것 등입니다.

이를 위해 'All 4 One'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 예술인 교류를 통해 남북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민족 예술사 학술포럼을 개최해 한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남북문화예술대학교 교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리아 평화 청년 영화제작 사업을 통해 남북의 영화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산업박람회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정했는데요.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류 붐과 함께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콘텐츠들이 기업이나 관공서에 연결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 기업이나 관공서에는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차세대 예술인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남북예술전문학교를 건립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악기를 지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수



▲ 장만기 회장이 이성림 의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장학금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평화예술인상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치하하는 국제적인 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상을 통해 예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평화 메신저 월드투어 프로젝트입니다. 평화 국악연주회, 남북 평화 어린이합창단, 코리아 평화 오케스트라 등을 기획해 합동공연, 투어 공연을 함으로써 한민족의 우수성과 평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넷째는 DMZ 예술인센터를 건립 프로젝트입니다. 자연 생태 보호지역인 DMZ 내 작품 공동작업실, 공연장, 예술학교 등을 건립해 평화통일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명감이 없다면 실천하기 힘든 일로 보여 집니다.

남한과 북한의 예술인들이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우리는 하나'라는 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사실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정부만 나서서는 이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통일문제는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여당도 야당도 구분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야 합니다. 특히 예술인들은 어디든 어려움이 있다면 달려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길, 통일을 위한 길,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일에 미력하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예총 회장을 3번 연임하시는 동안 예술인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예술인센터 건립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문화의 힘이 국력의 크기를 가능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이자 원동력인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10개 회원단체가 참여해 창립된 한국예총은 130만 예술인 가족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술인의 숙원이었던 예술인회관 건립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10년 7월 재착공식을 거쳐 2012년 2월 대한민국 예술인센터로 완공됨으로써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센터는 관람과 집회를 위한 다목적용 국제컨벤션센터와 중소회의실, 업무시설 등 예술인들의 문화생활과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예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예술문화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림 의장은...

대한민국 예술인들을 어우르는 대모

"나의 몸과 마음은 평생 예술 속에 파묻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사회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문화예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이성림 의장의 예술인으로서의 신조다.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을 비롯해 당대 최고의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6세에 자연스럽게 국악에 입문한 이 의장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재학 당시 KBS 국악연구생으로 해외순회공연 활동을 하면서 이매방, 박귀희, 한명숙 등의 스승에게 승무, 가야금병창, 살풀이춤을 전수받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과 함께 예술행정가로서 문화예술인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국악의 해였던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국악협회 이사장 3선에 성공해 10억의 예산을 100억대 사업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한국민족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문화인들의 친목과 권의 옹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해 3번 연임하는 동안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130만 예술인의 숙원사업이었던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인센터를 국제적인 조직으로 키워 예술인들의 무한한 신뢰를 이끌어냈다.

10여 년 전부터 남북이 함께하는 단체 설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이 의장은 정치 경제로 풀지 못한 문제를 예술로 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오직 예술을 위해, 또 예술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예술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 예술인 이성림의 소망이다.

- 1945년 생
- 1962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 1964 중앙대 체육무용학 학사
- 1994~2000 한국국악협회 이사장(19~21대)
- 1994 국악의 해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
- 2000~201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23~24대)
- 2001~2003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2001~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한국메세나협의회 이사
- 2003~현 제3기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제11기 민주평통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상훈> 민속국악진흥회회장, 통일기반조성상, 육관문화훈장, 체육훈장맹호장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의 창립대회에서 권영걸 수석부장을 통해 발표된 남북예총의 비전 전문을 소개한다.

남북예총의 비전 "통일의 완성은 문화통일이다"



권영걸

(사)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
수석부장(서울대 교수)

올해는 남북 정전협정 60주기를 맞는 해로, 이 뜻 깊은 해에 남북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를 설립하고, 향후 비전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5개 기본조항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중 네 번째 조항에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선언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문화·예술 등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으로 남북의 신뢰가 두터워졌는지는 의문이다.

남북한 및 주변국들은 정치, 안보상의 벽을 낮추거나 허물기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 있지만 문화예술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고, 반목이나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남북한 및 세계 국가들은 문화예술을 축으로 교류 및 협력의 3차원 공간을 마련하고, 입체적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반세기 이상 전혀 다른 문화체제 하에서 살아왔다. 이 분단의 역사 속의 문화적 다양성이 후일 통일시대의 힘이 되도록 지도층들이 지금부터 상호존중의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화합과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예총의 주요 핵심과제인 '예술인 교류', '차세대 예술인 육성', '평화 메신저로서의 위상 구축', 'DMZ 생태·예술 특구 조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통일 농사의 비전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남북 문화예술의 접붙이기를 통해 통일시대의 국가 창의력을 제고해야 한다.

애플의 혁신을 이끈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단지 연결시키는 것이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디자인, 마케팅 등 타 영역 전문가들의 단지 열린 소통만으로 창의력이 실현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한반도 분단 상황에 빗대면, 남북문화의 창의성도 서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문화 창조의 촉매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제까지 남북은 상호 무관심과 무지로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다. 또한 남북의 문화예술은 정치, 외교, 안보의 종속변수로 장기적인 정책 하에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제 남북예총을 통해 남북 간 문화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남북문화 접촉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야 한다. 또 젊은이들이 남북 공동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여, 후일 국제무대에서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예총이 제안하는 문화예술 접붙이기 프로세스는 남북 공통기반인 전통문화예술분야부터 교류협력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남북의 자율적인 공동 창작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이후 더 멀리까지 미래상을 구상한다면, 통일한국 국가정체성프로그램 UKNIP, Unified Korea National Identity Program'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상징은 국기國旗, 국장國章,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 한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시청각 요소들이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남한과 사회주의 북한은 각각의 통치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상징들이 문화예술 각 분야별로 연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양 갈래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는 국가상징에 대한 극복과 통합도 이제 남북예총을 통해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창의적인 통일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남북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정체성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지금부터 문화예술계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학술 교류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이 공조하는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의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5년 말까지 세계 '한국학' 개설국은 62개국, 735개 기관에 이르렀고, 언어,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연구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K-pop 등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젊은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의 지속적 문화예술분야 학술교류를 위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춘 한국학 학술조직을 구성하고, 남북의 연구 분담을 통해 남북 문화예술의 접붙이기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차세대 예술인 육성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초이념적 문화통일을 이뤄야 한다.

첫 번째 목표가 조직과 체계구성 중심의 통일 텃밭 구상이라면, 남북 차세대 예술인 육성은 생명력을 가진 통일 씨앗 심기의 미래 구상이다. 통일을 들먹일수록 통일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통일 논의가 사람을 떠나 정치 경제의 잣대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60년 동안 체험했다. 남북 이데올로기의 합집합에는 결국 '사람'이 있음을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이다.



남북의 헌법에는 그 중심에 국민國民", 인민人民', 즉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장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장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에게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체가 어떠한 모두 '사람'이 중심임을 전제하고 있다. 사람들 간의 차별 없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문화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초이념의 차세대 남북 문화예술인들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람의 존재가치를 중심에 두고 남북문화의 소통과 조화를 추구하는 교류와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남북예총을 통해 차세대 우수 문화예술인재를 키우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남북 상호 파견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전문가 과정 교육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차세대 문화예술 인재들이 통일한국을 향한 새 문화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온라인 통일문화 교육, 학력 상호인정 체계 등을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세기 동안 이질화된 남북한 교육의 극복은 차세대 예술인 육성뿐만 아니라 기초 의무교육에서 문화예술 교과목 통합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남북 교과서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교육통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교육자료, 통일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남북 문화공연장을 계획해 보는 것도 통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새 한국의 남북 통합현상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남북예총은 남북 협력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은 평화 메신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통일 농사의 텃밭 가꾸기, 씨뿌리기를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는 '평화 뿌리내리기 및 번식시키기' 단계로 남북한의 평화 메신저'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언급했듯이 민족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할 국제무대가 될 것이다. 독일통일의 특징을 설명할 때 2+4 통일'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동서독과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의 통일합의 등 국제정치 관계가 얽혀있었다. 한반도 역시 정전협정 이후 지속된 동맹국과 주변국들의 통일 지지가 필요할 것이기에, 후일 한반도 통일은 국제 평화의 큰 진보



로 평가될 것이다. 이에 통일은 국제적 평화대사로서 국격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통일 이후 한국은 60여 년간 이질적으로 성장한 남북의 문화와 현대문명이 융용되는 문화융광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남북은 이제 평화 이미지 구축과 국제 평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남북 화합과 국제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된 공연과 문화예술 학습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 연주단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공연과 행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떠나가야 하며, 국내에서는 지역별 문화센터를 통해 하나 됨'을 주제로 한 연극, 콘서트,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는 13개의 '통일관'을 통일 후부터는 새 한국 평화관'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체험과 평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유·평화도서관 및 남북 상설공연장, 상설전시장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추진도 세계 대표 평화국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K-DMZ 생태예술 특구 조성'을 통해 한반도 자유, 평화, 창조의 구심점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전쟁의 상처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이 공간은 정전협정 이후 60여 년간 자연적 천이遷移과정을 거쳐 생태계 복원이 일어난 공간이기도 하다. DMZ는 백두대간과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Core Eco-axis의 구심점이다.

군사용어인 비무장지대DMZ는 분쟁중이거나 국경을 공유한 인접국들 사이의 충돌을 예방하는 경계영역으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K-DMZ, Korean Demilitarized Zone'으로 명명되어야 마땅한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과 자연생태환경'이라는 두 개념을 축으로 하여 신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무장지대K-DMZ 내에는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의 엄숙한 분단을 상징하는 300여개의 진지Position, 관측소OP Observation Post, 감시소GP Guard Post, 철책선 등 다양한 전쟁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장병들의 유해가 아직도 곳곳에 묻혀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에서 발굴되는 무기들과 유물들을 갖춘 근대 재래무기 공원'을 조성하고, 해안포 동굴이나 옛 군사시설들을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

는 문화예술 특구로 조성하는 계획을 남북이 함께 구상할 수 있다. 또한 '반복지회 통일포럼'과 같은 평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와, CNN 설립자이자 국제 언론의 거목인 테드 터너Ted Turner는 비무장지대를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을 추모하는 세계평화공원World Peace Park'으로 만들고,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 내의 격전지에 참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구역을 설정하고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무장지대K-DMZ는 세계적 환경자산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Jane Goodal 박사와, 예일대학 산림환경대학장 피터 크레인 경Sir Peter Crane은 K-DMZ를 기회의 땅이자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인류 미래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반세기 이상 완벽하게 보존된 K-DMZ는 온대지역의 천이과정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방계 생물과 북방계 생물의 교류지로서, 세계유산협약'에 등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과 세계의 석학들이 협력하여 환경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후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설악산까지 세계 자연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K-DMZ 환경보존의 마스터플랜과 개발규정이 마련돼야 남북문화예술 특구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DMZ는 친환경적인 예술창작 공간, 공연 및 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설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화합과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예총의 주요 핵심과제인 예술인 교류', 차세대 예술인 육성', 평화메신저로서의 위상 구축', DMZ 생태 예술 특구 조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통일 농사의 비전을 구상해 보았지만 여전히 통일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미래상은 우리 문화예술계 지도층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문화예술, 그리고 관련 장르인 건축, 무용, 음악, 문학, 미술, 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패션 등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그 기본 구조이다.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제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왔으며, 결과적으로 통일 논의는 소망스럽다할 정도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국가통일, 국토통일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일의 완성은 사람중심의 문화통일이다. 언제 올지 모를 통일의 날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 통일이 진전 촉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예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리더들이 먼저 서로를 이해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KMI**

제 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제8회 제주포럼이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지난 5월 29일~31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아피시트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한승수 전 총리 등이 연사로 참석해 아시아의 발전방향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전문직여성세계연맹) 회장이 참여한 특별세션과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참석한 특별세션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세계경제 속의 CSR, 기업의 표준을 바꾸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운영한 첫 번째 세션은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의 사회로 김영호 한국CSR표준화포럼 회장(단국대 석

좌교수)의 주제발표,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최고고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영호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자본주의 4.0시대, 세계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CSR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책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고 ISO 26000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경영원칙이라면 CSV(Creating Shared Value)는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경영의 전략적 도구이다. 기업 영업방식은 핵심적인 전략은 같아하되 CSR 전략을 덧붙이는 형태로 가는 CSR Washing으로 가고 있다. 한국의 CSR 정착가능성은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녹색성장, 노동문제, 지하경제양성화 등과 중첩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복합적인 시각에서 키워야 하며, CSR, SRI, SRC, SRL, SRS, SRB, SRG 등 모든 것이 함께 다자관계로 접근하는 멀티매트릭스 시스템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회장

▲ 행사 전체 모습

▲ 짐 로저스

▲ 만찬 모습



▲ 본원이 주관한 기업의 CSR세션

이러한 토론에서는 'Responsible 하면 Return된다'는 Responsible Competitive(책임 경쟁력)가 핵심으로 논의되었으며, 한국기업들이 인증을 받았으나 사회적 존경은 못 받는 검증(Verification)제의 문제를 극복해보자고 주장들이 제기됐다.

'세계 경제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위기가 끝나면 CSROI 된다'가 아니고, 'CSR을 시작해서 위기가 극복되고 SR자본주의로 정착될 것'이라는 게 토론의 요지다. International Framework을 살펴보면, China-Sweden CSR MOU (2007)는 스웨덴과 중국의 국제협력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12년부터 노르딕 CSR Joint Project를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하나의 연대로 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토론 참여자들은 "CSR기준이 상당히 낮아져 한 국가나 일본은 발꿈치를 조금만 높이면 된다. 사회적자본주의를 높여서 자본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말로 기업의 적극적인 CSR에 대한 의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했다.

아시아의 연대협력과 신사업 신기술이 세계를 구한다

본원이 운영한 두 번째 세션은 시모무라 하루분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장만기 본원 회장의 사회로 가와이 야유무 일본 아마토그룹 대표, 조우진 일본 다마대학교 교수, 교도쿠 테츠오 일본 BE연구소 소장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모무라 장관은 "우리는 지금 이 회의장에 왜 모여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예컨대 산성비와 온난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의 문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원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해결과제이며, 국가별 자원의 문제를 지도로 표시해보면 특히 아시아 지역에 리스크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베정권이나 박근혜정권도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을 중시하고 있지만 종래의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모무라 장관은 이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이며, 아시아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세계적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이한다는 발상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생각을 시프트함으로써, 그리고 그 집합으로써 사회 전체를 시프트하며 공동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는 가치관의 역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가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지성이다. 왜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위기감이 선행하는 발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이함에 있어서 아시아라는 틀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오픈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인도, 아프리카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 4월에 미일 과학기술협력 합동고급위원회에서 연구 교류촉진에 관해 합의했다. 학술계에서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국제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에 의한 대학교육프로젝트인 '캠퍼스아시아'의 진전 상황이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시프트 시대의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관으로서 과학기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한일방문단 간담회 호평

인간개발연구원은 5월 29~30일 양일간 한일방문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일본과의 경제방문단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를 다져온 인사들과 함께 한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연대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포럼 참여기관들로부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치갈등과는 다르게 한일 양국을 위한 적극적인 발언들과 친교가 이루어져 민간차원의 한일 외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은 매해 개최되는 제주포럼을 통해 한중일 아시아 리더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민간 경제 외교의 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KIRI**



▲ 한일 경제 방문단 간담회



▲ 한일 경제 방문단 간담회 직후

인간개발연구원 제2회 Learn SAMSUNG Forum 개최

세계적 기업을 넘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무엇이 삼성의 성장을 이끌었는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성공비결을 하루에 배우는 '제2회 런삼성포럼'이 인간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 세븐&파트너스 공동주최로 지난 5월 14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I, II로 나눠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CEO 및 경영진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삼성의 성공비결과 핵심에 관해 학습하며 시종 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라다는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하루를 꼬박 쏟아부으며 배우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구의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된 삼성이 다양한 혁신적 체계와 전략들을 거쳐 소니, 노키아,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넘어 초일류 기업이 된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고 자사의 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이였을 것이다.

손욱 서울대 교수의 기초특강을 시작으로 14일 포럼 I 은 세계초일류 삼성SCM, 관리의 삼성, 삼성의 경영혁신, 인재의 삼성, 삼성의 Holistic Marketing을 토픽으로 진행됐으며, 22일 포럼 II 는 삼성의 리더십과 인재경영, 삼성의 창조경영과 가치혁신, Hidden Champion 그 전략적 교훈과 삼성, 삼성의 디자인경영, 삼성의 IT활용 등을 토픽으로 진행되었다. 제2회 런삼성포럼을 한국경제신문과 월간 '엑셀런스코리아'의 기사협조로 리뷰한다.

편집자 주



▲ 한영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인사말

'글로벌 삼성 비결은 인재 집착 중' S급 영입 얼마나 했느냐가 CEO 평가 좌우

"삼성 사장들은 매년 연말이면 S (super)급 인재를 스카우트하러 다니느라 국내에 없습니다. S급 인재를 얼마나 발굴했는지가 인사

과 비중의 30%나 되기 때문입니다."

성상현 동국대 교수(경영학과)는 제2회 런삼성포럼(Learn SAMSUNG Forum)에서 삼성의 인재경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성 교수는 1990년 초 삼성에 입사,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등에서 11년간 일한 인사 전문가다.

성 교수는 "삼성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욕심이 많다"며 "S급과 A(ace)급, H (high potential)급 인재 확보와 함께 연수, 공모제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집중한 것이 오늘날 '인재의 삼성'을 만든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S급은 높은 잠재능력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인재를 말하고 H급은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뜻한다.

성 교수는 "선진 경쟁업체의 마케팅 인력이나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해외법인 현지 채용을 통해 인력의 질을 빠르게 높였다"며 "또 뽑은 인재들을 교육과 이동, 승진 등을 통해 조절하면서 경영자로 체계적으로 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일류 인재 확보는 일단 성공적이지만 이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갈지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 창업 이념에 포함돼 있다. 예전엔 인재를 '임도선매'하기도 했다. 인재라고 생각하면 대학 2학년 때부터 삼성 입사를 권하기도 했다는 게 성 교수의 얘기다. 이견희 삼성 회장은 기회가 날 때마다 계열사 사장들에게



▲ 성상현교수의 '인재의 삼성 강연'

"유능한 인재 1명이 나머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 유능한 인재를 삼성으로 데려오라"고 독려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오동길 전남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삼성이 초일류를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혁신의 방식 등을 참고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이창수 대표의 '삼성의 디자인 경영'

삼성 디자인 성공 비결? 리더십 · 과감한 투자

"2001년 회장님이 디자인팀을 소집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트렌드는 '와이드 앤드 슬림(wide & slim)'이다."

2000년대 초는 작고 통통한 디자인의 휴대폰이 주류일 때다. '넓고 얇다'는 두 단어만 제시한 이근희 삼성 회장의 주문은 디자인팀을 당황케 했다. 당시 삼성전자 무선디자인 전략 파트장이던 이창수 리드디자인엔지니어링 대표는 팀원들과 밤샘 토론을 해가며 한 달 만에 세 가지 모델을 디자인했다. 삼성전자는 개발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17mm 의 얇은 모델까지 8개월 만에 양산했다.

이대표는 5월 22일 열린 제2회 런삼성포럼(Learn SAMSUNG Forum) II에서 삼성 디자인 경영의 힘을 소개했다. 그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가전디자인 전략 파트장, 무선사업부 디자인팀 그룹장 등을 지내며 19년간 디자인 관련 실무 작업을 했다.

이대표는 "앞서가는 디자인을 갈망한 리더의 방향제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조직의 실행력이 성공 비결"이라며 "현재 삼성은 세계 7곳의 디자인센터에서 5000건 이상의 개발과제를 수행하며 '디자인양산공장'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 손욱 前삼성 SDI 대표의 '기조강연'

눈길 끈 'Learn SAMSUNG Forum'

'세계 초일류' 삼성을 배우자
이병철 선대회장은 '관리의 신',
이근희 회장은 '창조의 신'

포럼 II 기조연설은 삼성맨 손욱

한국형리더십연구회장이 맡았다. 그는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를 주제로 삼성가 오너들이 어떻게 삼성과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손 회장은 "故 이병철 선대회장이 '관리의 신'이었다면, 이근희 회장은 '창조의 신'이라며, '삼성의 혁신 DNA는 2대에 걸친 삼성가 회장들이 한국인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끌어낸 리더십에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 특유의 뛰어난 역량은 바로 위기에 강하고, 결집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삼성에서는 누구의 이름도 붙지 않는다"며 "융합에 의해 모든 일이 팀워크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철 선대회장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시켜 삼성의 인재로 만드는 '사람 관리'를 가장 잘하는 리더였고, 이근희 회장은 자율경영, 기술중시, 인간존중을 제2의 창업정신으로 내세워 끝없는 토론과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조경영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영 삼성, 200명 임원의 68일 대장정'의 수행팀장으로 동행하며 겪었던 이근희 회장의 사례도 소개했다.



▲ 김동준 박사 '삼성의 창조경영과 가치혁신'

"직원들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 유럽, 영국, 일본 등에서 최고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견학하고 반성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회장은 30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 도쿄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기 전날 일본 전문가들과 새벽까지 토론을 하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보고서를 주며 대책을 제시해 보라고 지시했다. 계속된 토론과 주문이 이어졌다."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한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삼성의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기도 한 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혁신을 거듭하기 좋은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을 배우고자 한다면 "좋은 것을 모두 융합해 최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런삼성포럼은 포럼 I 과 포럼 II 로 각각 5월 14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SK에너지, (주)한화, 한전KPS(주), 세아제강, 장성군 청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정부기관/지자체 고위 공직자 인사 50명이 참석해 기업경영의 교과서인 삼성의 성공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강민주 기자 joo@excellencekorea.com

새로움과 가치를 창조하는 월례조찬회 'CEO 지혜산책' 그랜드 오픈

최신 경영트렌드 읽고 경영핵심 사례 발굴해 나가는 품격있는 조찬모임 지향

'Good to Great'를 모토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최신의 경영 트렌드를 읽고, 경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월례조찬회 'CEO 지혜산책'이 지난 6월 11일(화)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그랜드 오픈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의 "비전과 성장"을 주제로 열린 개강강연에는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CEO 지혜산책은 38주년 1800여 회에 이르는 인간개발연구원 주례조찬회의 역사를 잇는 월례조찬회로 탄생했으며, 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영의 핵심 및 우수 경영사례를 발굴하고, 경제 경영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파악하며 솔루션을 고민하는 CEO 지혜경영의 장(場)이 될 전망이다.

150명 CEO들의 아침 열어줄 'CEO 지혜산책' 출범

38년 역사 잇는 품격있는 조찬모임 만들 것

장만기 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75년 설립된 인간개발연구원은 설립 당시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조찬세미나를 개최해 경제발전의 주역인 경영자들의 새벽을 깨워왔다"며, "오늘 CEO 지혜산책의 출범은 34년간 전경련에서 교육 외길을 걸어온 한영섭 신임 원장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간개발연구원의 역사가 더해져 우리 사회에 새로운 조찬문화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강연장을 찾은 경영자들에게 모임 출범의 의미를 전했다.

CEO 지혜산책 조찬회를 기획한 한영섭 원장도 인사말에서 "38년 역사를 지닌 인간개발연구원의 주례조찬회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주례조찬이 어려운 경영자와 강남권 이하 소재 기업의 경영자들을 위해 월례조찬회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아껴주고 격려해주신 많은 경영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한 원장은 "CEO 지혜산책은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주제를 공유하고, 문사철과 예술을 아울러 전인적인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품격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

탁했다. 한편 인간개발연구원이 닦아 놓은 토대 위에 그동안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 주례조찬회와 월례조찬회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영섭 원장은 전경련 부설 'CEO조찬회'를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한 것은 물론 27년여 그 모임을 주관한 책임자로 'CEO 교육의 전문가'라면서 "그런 분을 원장으로 모셔와 CEO들을 위한 비전과 꿈을 주는 특별한 조찬모임을 만들도록 한 장만기 회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CEO 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조적인 두 인물이 만나서 이루어 낼 인간개발연구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회원들이 매월 둘째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가슴 뛰는 감동을 나누는 모임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만기 회장 인사말 ▲ 포럼을 기획한 한영섭 원장 ▲ 손병두 이사장 축사

비전 수립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Goot to Great로 나아가는 출발점

강연에 나선 신동엽 교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최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비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리더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전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좋은 리더란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비전을 갖춰야 한다."


비전이 정립되어야 방법론 즉, 전략이 나온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비전은 꿈과 같은 것이다. 꿈은 절실하게 바라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미래다.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많은 경우 How to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전략은 이야기하지만 비전을 이야기하는 리더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CEO가 가져야 할 4대 비전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현실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둘째, 리더 스스로 가슴이 뛰어야 한다. 자기 꿈을 꺾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명확해야 한다. 구

체적이고 명확해야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넷째,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위대한 기업(Goot to Great)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끝으로 신 교수는 경영자들에게 비전의 주기적인 혁신을 통해서 개인, 기업, 국가가 점점 더 높은 레벨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즉시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쳤다.

CEO 지혜산책은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CEO들을 회원으로 모셨으며, 송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장, 구자관(주)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 박호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송병문 ABC상사(주) 회장, 장세일(주)일성 회장, 전병직(주)코리아나 회장, 제갈정웅 대림대학교 총장, 조용선(주)유창 회장, 임진혁(주)동연산업 회장, 홍종식 금전기업(주) 사장 등 200여명의 각계 인사 및 CEO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강연은 7월 9일(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비바체룸에서 송영수 한양대 교수의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인문을 통한 성장,
창조를 통한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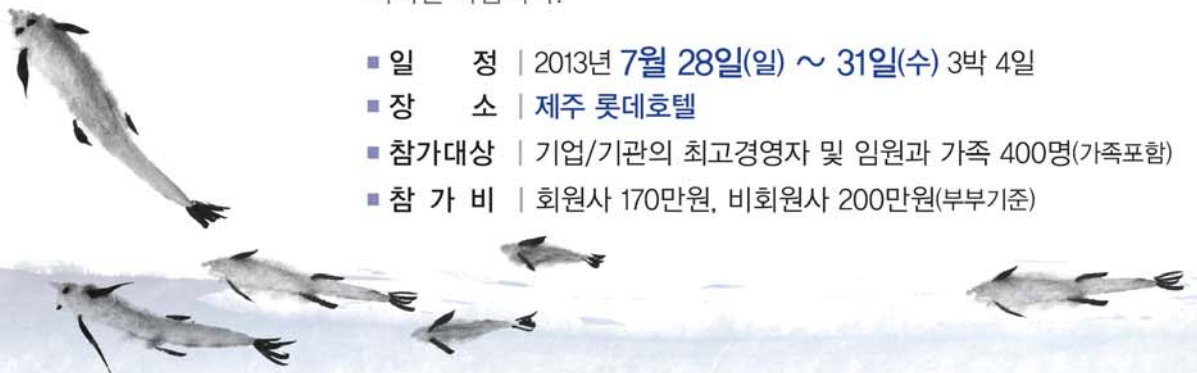
**제31회 JEJU CEO
SUMMER FORUM**
힐링의 바다에서
만나는 지혜의 숲

창조적 영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지휘해 갈 CEO 여러분들을
2013 제주섬머포럼에 모십니다.

세계경제의 함정 속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치루고 2013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행복이 정치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본 섬머포럼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균형잡힌
리더의 인생지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큰 생각을 만들어가는
시대적 가치를 공유합니다. 3박 4일간 힐링의 바다에서 만나는
지혜의 숲을 통해 내 안의 숨겨진 창조적 미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정 | 2013년 7월 28일(일) ~ 31일(수) 3박 4일
-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 참가대상 | 기업/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400명(가족포함)
- 참 가 비 | 회원사 170만원, 비회원사 200만원(부부기준)



Think The Future 미래를 생각하라

7월 28일(일) / 제 1일차

시간 프로그램

17:00~ [개회사]
조순 前 경제부총리

17:10~18:00 [기조강연]
창조경제 시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10~19:00 [가족강연]
행복한 인생으로의 힐링,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이해인 수녀

19:10~21:00 [환영만찬]
환영인사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환영공연 & 참가자 친교한마당



Dream The Future 미래를 꿈꾸어라

7월 30일(화) / 제 3일차

시간 프로그램

08:30~09:30 [미래의 경영]
꿈의 진화, 아트 마케팅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09:45~10:45 [미래의 조직]
우리가 꿈꾸는 기업
이형우 (주)마이다스아이티 대표

11:00~12:00 [미래의 유산]
지속가능성의 조건, 열정의 DNA를 남겨라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

09:45~12:00 [소통 워크숍]
행복의 스위치를 켜라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

12:00~18:00 제주 테마여행 / 친선 골프대회(에버리스CC)

20:00~21:00 <제주 섬머 음악회> 한여름 밤의 꿈
홍지민 뮤지컬배우, 영화배우

Design The Future 미래를 디자인하라

7월 29일(월) / 제 2일차

시간 프로그램

08:30~09:30 [경영특강]
CEO의 꿈과 열정이 기업의 역사가 된다
이재욱 CJ대한통운 부회장

09:50~11:50 [경영대토론]
세계경제의 위기, 한국식 경영 K-STYLE로 해법을 찾는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모더레이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허남석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09:50~11:50 [건강 워크숍]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김혜남 김혜남한의원 원장

11:50~18:00 제주 테마여행 / 친선 골프대회(타미우스CC)

18:00~20:00 [와인스쿨]
신의 물방울, 와인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이동현 BWS 강남와인스쿨 회장

Create The Future 미래를 창조하라

7월 31일(수) / 제 4일차

시간 프로그램

08:30~09:25 [창조적 인생철학]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최고의 인생을 묻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대표

09:40~10:35 [창조적 예술충전]
미술로 만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본질
이주현 미술평론가, 서울미술관장

10:50~11:45 [창조적 역사외식]
과거의 역사에서 키우는 미래를 보는 눈
신봉승 추계예대 교수, 작가

11:45~11:50 [폐회인사]
한영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 상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소식



한반도미래재단의 구천서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한중경제협회는 4월 26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중국 쓰촨(四川)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구천서 회장을 비롯한 김광석 참존그룹 회장, 오현금 한중경제협회 대외협력위원장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원인 (주)에듀코 김영철 대표도 참석해 함께했다. 한중경제협회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민간차원의 경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중국 양국간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민간단체다.



갤러리 아르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예술과 여행(대표 이종원)은 국내 최초로 '천경자화백' 캐릭터 상품 상설 전시관을 운영한다. 천경자 화백은 살아있는 한국채색의 전설적 존재로 강렬한 색채와 역동하는 감성을

지닌 한국의 대표적 여류화가이다. 전시를 주최하는 예술과여행은 '전국민의 문화예술 사랑과 아름다운 미술품 갖기 생활화'를 통해 선진문화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미술품 판매회사로 강남역 신분당선역 사내 '갤러리 G-Arche'를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이 인도 최대 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와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지급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수출입 등 외환사업 협력, 상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나해 11월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지점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점 설립 이전에도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게 현지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동화세상 에듀코(대표 김영철)가 지난 5월 8일 열린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나눔장터에

자발적 물품 기부를 하여 나눔장터에 희망과 온정을 더했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구세군 두리훙과 함께 주최한 행사로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이 동참하여 기부한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미혼모가족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지난 5월 13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소외계층의 노후주택 보수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동제약은 2008년부터 무료 집수리 봉사단체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임직원이 매년 2~3회 어려운 이웃의 노후주택 보수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07년 비영리재단인 '가산문화재단'을 창립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한국전문경영인학회(이사장 강석진)는 지난 5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2013 한국창업대상과 한국CEO대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본원의 회원인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이 한국CEO대상 특별

상을 수상했다. 2부 학술대회에서는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의 강연이 진행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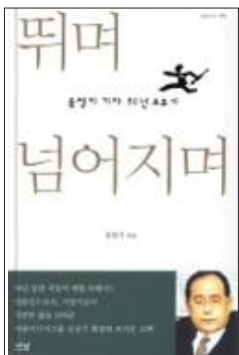


셀리코리아(대표이사 윤종효)는 수면 질환 전문 코모키수면클리닉과의 의료 서비스 향상 및 마케팅 교류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회사측은 정형외과적으로 최적의 수면 자세를 잡아주는 셀리침대의 기술과 미국 수면 전문의 시험을 통해 인증 받은 코모키수면클리닉의 선도적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수면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도GL(사장 김상래)은 지난 5월 25일 헤이리 공간퍼플에서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후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Giuseppe Verdi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해설이 있는 Opera "La Traviata"

Gala Concert로 구성된 야외 콘서트로 열렸다.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6년 Opening Concert를 출발점으로 하여 2007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주)성도GL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하에, 기업과 예술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심상기 서울문화사 회장이 최근 50년 동안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언론인으로 기업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고백을 담은 책 <뛰며 넘어지며>를 출간했다. '올챙이 기자 50년 표류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언론인 심상기가 뛰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 기록하고 몸소 체험한 어제와 오늘의 현대사 단면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4·19 혁명, 5·16쿠데타 등 격동의 50년 삶을 조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불교재단(이사장 이용국 신원철티 회장)은 지난 5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위치한 만봉사에서 만봉불화박물관 개관기념식 및 축하행사를 가졌다. 만봉불화박물관은 전통불화 및 단청의 맥을 이어온 만봉스님의 유업을 기리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화박물관으로 연구원 소그룹인 '화목회' 회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개관식에 참석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재능교육(대표 양병무)의 '스스로e' 프로그램이 '2013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에서 스마트러닝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교육기업대상을 수상한 스스로e는 모든 세트가 온라인

상에서 학습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회원과 선생님, 학부모가 상호 양방향성으로 학습과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및 패널 리서치 조사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는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대학로 본부 DMCS튜디오에서 봉사단 '나누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나누미'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재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상호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학생 봉사단체이다. 각계각층의 남녀노소로 구성된 나누미는 내년 초까지 활동하게 되며, 숲 가꾸기 봉사활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창수)가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항공화물 전문지 에어카고위크(Air Cargo Week) 주관의 '세계 항공화물 어워드(World Air Cargo Awards 2013)' 시상식에서 올해의 화물 공항상(Airport of the Year 2013)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올해 최고의 화물 공항은?'이라는 개방형 설문에서 가장 많은 피설문자들이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 공항으로 떠올리며 직접 투표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세계적인 여행전문 잡지인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선정한 세계 최고 공항상을 7년 연속 수상한 인천국제공항은 에어카고위크 올해의 화물공항상 수상을 계기로 여객과 화물의 양대 최고 권위의 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갤러리 에쁘고(대표 김희정)는 지난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유기견 작가 함영미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 초대전에서는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전시 기간 중 전시장을 둘러 사연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자들 중 선별하여 '유기견보호소' 작품 1점을 개별발송해주는 '작품입양 이벤트'를 진행했다. 갤러리 에쁘고는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비전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이는 갤러리로 유명하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6월 13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내 고장 사랑 운동' 업무 협약을 가졌다. '내 고장 사랑 운동'은 '한국마사회 내 고장 사랑 카드'라는 이름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용 실적의 일부가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되고, 카드 발급 1좌당 1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조성된 기금은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농어촌 및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저소득층에게 전달된다.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중국 북경의 '국제 안중근 사상 연구회와 국제문화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개최한 '제5회 국제 안중근의사상 시상식'에서 국제로터리활동과 Operation Smile Korea을 통한 봉사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국제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지난 6월 세계 최대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로부터 높은 인지도와 호평을 얻은 호텔 및 서비스 업체에게 수여되는 '2013 CERTIFICATE OF EXCELLENCE' 어워드를 수상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TRAVELLER'S CHOICE 2013에 이은 연속 수상으로 고객만족을 향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엠배서더호텔(회장 서정호)은 6,7,8월 석달간 여름철 전기 절약 캠페인인 '그린 라이프'를 실시한다. 캠페인이 펼쳐지는 동안 다양한 전기절약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번 캠페인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정에서도 캠페인을 펼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기를 절약한 사연을 공모하여 수상하고, 11개 호텔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절약한 호텔별로 시상도 할 예정이다.

커닝햄그룹(부사장 니나안)은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심 복합센터와 리조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임스 샤이델 커닝햄그룹 회장과 빈센트 첩 아그룹 친환경디자인 총괄이사, 켄 휘틀리 크리스티디지털시스템 마케팅 총괄이사가 참석해 도심 복합센터와 리조트 개발과정의 특화된 기법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 소식



인간개발연구원

8개 단체와 국가전략포럼 출범

본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을 비롯해 로하스코리아포럼(이사장 이만익),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 범시

민사회단체연합(대표 이갑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차광은), 흥사단(이사장 반재철) 등과 함께 공동주최로 '국가전략포럼'을 출범했다. 7월2일 출범식과 함께 열린 포럼에는 150여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이사장과 박세일 이사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김진현 이사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각 단체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아 향후 포럼을 운영해 나기로 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주)다비육종	윤희진 회장	07월 05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07월 07일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07월 0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민형 상무	07월 15일
썬테일러	우덕성 사장	08월 01일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	08월 27일

연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5~6월)

개인회원

- 김학면 에스까다코스메틱(주) 대표이사
- 류무중 (주)다이어먼트 회장
- 구교근 한마음특허법률 대표
-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교수
- 김진희 이소도 대표
- 윤영섭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 김인석 한국주재연변대표처 수석대표
- 이승우 나경상(주) 회장
- 김인환 GS자이 지식산업센터 부장
- 이재용 세람상호저축은행 회장
- 고지석 세무법인내일 회장

· 전순표(주)세스코 회장

· 정창현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사장

· 최민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최신옥 명진고등학교 이사장

· 최종보 파란나라 대표

· 함정희 함씨네법상 대표

법인회원

· 미래셋생명보험

(수석부회장 최한만)

· (주)에듀코 (대표이사 김영철)

· 농협중앙회 (회장 최원병)

· 삼익THK(주) (고문 심갑보)

소모임 소식

● 이종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

은5월 16일 이벤트 행사로 김영재 한신전선(주) 회장의 공장을 방문하는 친선 행사를 가졌습니다. 6월 정기모임은 24일(월) 오후 6시 30분 역삼동 '예원'에서 갖고 회원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종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임종렬)는 5월 28일 이용국 신원

헬트(주) 회장(신원불교재단 이사장)의 초청으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만봉사에서 열린 만봉불화박물관 개관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참여하여 친목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청해주신 이용국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정문호 / 총무 정지환)은 5월 13일과 6월 10일 도곡동 옹고롱고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손광성의 수필쓰기를 주제로 회원들의 글을 토론하고 품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 팩스 및 <좋은사람 좋은세상>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 및 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2-445-1949

· 팩 스 : 02-2203-1974



국내 최대 규모 불화박물관 '만봉불화박물관' 개관 화목회 회원 친선행사 가져

본원 회원들의 소그룹 모임인 이종기업협력동우회 제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가 회원들과 함께 오랜만에 봄나들이를 떠났다. 지난 5월 28일 화요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위치한 만봉사 만봉불화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영월의 문화유적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이번 방문은 (재)신원불교재단 이용국 이사장(신원헬트(주)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화목회 회원을 비롯한 본원 회원 25명이 참석했다. 화목회 영월 봄여행에 동행해 함께한 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5월 28일 아침 8시, 화목회 영월 방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회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로 고된 일정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고속도로에 올라 영월이 가까워질수록 구름은 걷혀가고 있었다.

열여덟 굽이길 위에 들어선 국내 최대 불화박물관 만봉스님 유업 잇고 불교미술 계승 발전

영월읍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물레방아쉼터'에서 강원도 산내음 물내음 물씬 풍기는 음식들로 오찬을 하며 강원도의 향기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회원들은 서둘러 만봉사로 향했다.

만봉사가 위치한 망경대산은 영월군이 자랑하는 '산꼬라데이길'로 유명한 곳이다. 산꼬라데이는 '산골짜기'의 영월 사투리다. 만봉사를 품은 망경대산은 1087.9m의 깊은 산골에 굽이진 고갯길이 백두대간의 당당한 위용을 뽐낸다.

산꼬라데이길은 김삿갓면사무소를 지나 예말촌길을 따라 시작되는데, 모운동 옛 탄광촌 벽화마을을 거쳐 내려오는 길까지 27.5km에 이른다. 최근 올레길 등 걷는 길이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영월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백미는 열여덟 굽이 돌고 돌아 오르는 '굽이길'이다. 일행이 탄 대형버스가 오르기 힘들 정도로 굽이진 이 길은 아찔한 등산의 맛과 함께 굽이길 아래로 보이는 산세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아름다워 차를 타고 이동해도, 걸어서 올라도 그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는 빗줄기가 정취를 더해 일행은 빗줄기를 머금은 창밖 나뭇잎을 보며 마음은 숲에 그대로 부려 두고 몸만 떠나온 것 같은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 영월을 방문한 화목회 회원들

굽이길을 돌아 오르길 20여분.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만봉불화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만봉불화박물관은 이용국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원불교재단이 총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화박물관이다. 한국 전통불화의 맥을 잇고 현대불화 발전에 힘쓰다 열반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만봉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고자 건립한 이 박물관은 전시실 7개, 세미나실, 영상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만봉스님의 유업을 잇는 유물, 탕화 등을 포함해 도자기,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불화작품 밑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다.

개관식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볼 자들과 강원도 및 영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1부 기념 공연에 이어 열린 개관식 기념사에서 이용국 회장은 "만봉스님의 유업을 받들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명승지가 많은 역사의 고장 영월에 만봉불화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어 기쁘다"며 "단순히 만봉스님의 불화와 단청 작품을 보관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종교를 초월한 특색있는 문화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된 만봉불화박물관

지명으로 관광상품 선점한 영월의 추진력 김삿갓유적지, 청령포에서 역사의 숨결 느껴

개관식 참석 후 일행은 김삿갓유적지와 청령포를 둘러보며 영월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삿갓유적지는 강원도와 경북의 접점지역에 위치해있는데, 바로 이곳이 태백산맥의 끝자락과 소백산맥의 시작점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해학과 재치, 풍류로 한 세상을 살다간 조선 후기 방랑시인 나고 김삿갓(본명 김병연, 1807~1863)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혼을 재조명하기 위해 영월군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조성했다. 영월군은 김삿갓과 한반도 지형을 닮은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 면 이름을 '김삿갓면', '한반도면'으로 바꾸면서 관광상품 선점 효과를 누리는 등 발 빠른 행정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삿갓은 전국 각지를 떠돌며 서민들의 애환과 양반들의 잘못된 생활상을 시로 읊조렸으며, 1863년 57세의 나이로 전라도 화순군에서 객사하였다. 이곳에 있는 김삿갓묘역은 1866년 차남 김익균이 이장하여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실제 김삿갓 모습을 한 안내원이 상주하며 찾아오

는 이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호탕한 너털웃음으로 김삿갓의 시를 읊조리는 그의 모습에 조선 후기 어느 하루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단종유배지로 잘 알려진 청령포이다.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머무르던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섬과도 같은 곳이다.

청령포에는 단종이 그곳에 살았음을 말해 주는 단묘유지비와 어가,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하는 노산대, 한양에 남겨진 정순 왕후를 생각하며 쌓은 망향탑, 외인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영조가 세웠다는 금표비 등 단종의 흔적을 알리는 유적들과 천연기념물 349호 관음송을 비롯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다. 슬픈 역사가 남아있는 청령포는 휘돌아 흐르는 서강과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2008년 명승 제 50호로 지정되었으며,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려야 할 곳 중 하나로 인기가 높다.



▲ 김삿갓 유적지(上)와 청령포(下)를 찾은 회원들

각종 명승지를 비롯해 박물관의 고장으로 불리는 영월을 하루에 다 둘러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 일행은 이른 저녁 만찬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며 영월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뜻 다한 이야기와 하루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행을 준비해주신 화목회 황석희 회장님, 이재욱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오가는 여정의 살림을 맡아주신 임종렬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원들을 초청해 영월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게 해주신 이용국 회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새로움과 가치를 창조하는 월례조간회

CEO 지혜산책 | 智慧散策

"Good to Great"를 모토로 경영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환경과 경영 트렌드를 읽고, 훌륭한 경영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친목하며, 경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CEO 지혜경영의 場



CEO 지혜산책은 ...

- 38주년 1700회 주례조찬회 역사 잇는 월례 조찬회로 구성
- 강남권역 이하 소재 기업과 경영자 위한 월례 조찬회 'CEO 지혜산책' 탄생
-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주제 공유
- 경제 경영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고민
- 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영의 핵심, 경영기법의 사례 발굴
- 문사철과 예술을 아울러 전인적인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구성
- 수많은 CEO 네트워크 중 선발된 회원들과의 친교
- 비즈니스 마케팅이 배제된 품위있는 멤버십

강연 안내



시간 : 2013년 7월9일 화요일 07:00~09:00
 강사 : 송영수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룸
 연제 :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시간 : 2013년 8월20일 화요일 07:00~09:00
 강사 : 나중호 강소기업연구원 원장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룸
 연제 : 기업의 마케팅전략

참여증진회원

강대성 강석진 구태서 권태호 김경이 김경준 김계철 김문규
 김성근 김성철 김영후 김재기 김재룡 김재원 김준호 김진식
 김태우 김형철 나승우 나중호 노영철 류승영 민태웅 박기홍
 박성호 박인주 박제덕 박형식 박호군 방동원 백병기 변재용
 손병문 손욱 손홍락 송병락 송영수 송윤기 송운택 외 200명

일정, 장소



시간 / 장소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가입, 문의

가입절차

입회신청서 ▶ 심사 ▶ 회비입금 ▶ 정회원 활동

가입문의

박성민 차장 T. 070-8670-8436 / E. sktmin@naver.com

연회비

회원구분	참석대상	1년	2년 선납	3년 선납
개인회원	본인참석	130만원	230만원	300만원
법인회원	임원 3인	300만원	550만원	800만원

입금계좌

신한 140-006-404197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연간일정

2013 7/9 ▶ 8/20 ▶ 9/3 ▶ 10/1 ▶ 11/26 ▶ 12/17

2014 1/14 ▶ 2/11 ▶ 3/11 ▶ 4/8 ▶ 5/13 ▶ 6/10 ▶ 7/8 ▶ 8/9 ▶
 9/16 10/14 ▶ 11/11 ▶ 12/9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좋은사람 좋은생각>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 (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료, 유료)	○	○	○	○			
	조찬 세미나 강연 CD 매주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 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 제외)	별도구매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 / 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 경영자교육팀 T. 02-445-1948



한여름 무더위도 뛰어넘는 교육의 열정

<교육컨설팅소식>

● 본격 무더위 속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5~6월 130회 진행



1년 중 가장 뜨거운 7~8월을 앞두고 지방 자치아카데미는 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5월 9일 부산 서구청에서는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자 방송인인 로버트 할리씨를 모시고 다문화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날 원주시청에서는 정덕희 교수를 모시고 삶의 행복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5일 울산 동구청에서는 국립암센터 원장을 역임한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모시고 금연과 암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5월 23일 당진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병후 행복가정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서는 배정원 행복한성상담센터 소장을 모시고 100여 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이후 행복한 부부관계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5월 24일 거창에서는 윤대현 서울대병원 교수를 모시고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는 한편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7일 서귀포에서는 <까마귀>의 저자인 한수산 작가를 모시고 소설의 집필과정과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고, 6월 19일 예천에서는 개그맨 전유성씨를 모시고 엉뚱한 상상이 가져오는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6월 25일 함안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조선방송의 이광백 대표를 모시고 반공교육을 실시했다. 5~6월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130회의 강연을 진행한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도 열기를 더해 활발한 교육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창녕군, 역만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고암면 역만리 소재 역만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받았다. 역만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8만1722㎡에 6만4347㎡의 산업용지이다. 이번 산업단지 준공으로 창녕군은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얻게 됐으며, 계획된 단지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자연과 온천, 문화와

관광 등 천연자원과 다양한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미래의 비전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하동군, <녹차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발간



하동군(군수 조유행)은 녹차의 효능을 통한 녹차음료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녹차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책자를 발간해 무료로 배부한다. 이 책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신문·인터넷 등 각종 언론으로 보도된 녹차의 효능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항암효과에서부터 음식과의 조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등 녹차가 건강에 미치는 효능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다양한 녹차 활용법을 담고 있다.


●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구미시·봉화군 수상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13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구미시와 봉화군이 각각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58개 소하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두 9개 지구가 우수 소하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중 경북도는 구미시(초곡천), 봉화군(유록천) 등 2개 시군이 응모해 각각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부천시 영화제사무국-우수 영화 16편 공개



부천시 영화제사무국이 영화제 주제와 부합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이 뛰어난 작품 16편을 공개하고 감상을 추천했다. 추천 작품으로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 '골드', 올해 부천영화제 경쟁 부문에 제안되고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뽑힌 '해리', '스릴러' '어글리' 등이 있다. 사무국은 이 외에도 '온 더 잡', '카운트 다운', '총능력전쟁', '영당이요정 마일로', '노스웨스트', '카이 포 체', '늑대가 양을 만났을 때', '러브 투모로우', '리 와인드 디스', '몬티 파이튼과 나', '컴퓨터 체스', '맨보그', '현실의 춤' 등의 우수영화를 추천했다. 

당신의 생애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작가로서, 화가로서, 스포츠맨으로서,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기업가로서, 경영자로서, 성직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 생애(삶)의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오르는 주제는 무엇인지, 좀 더 깊고 오묘하게 더 풍요하고 보다 실제적인 것을 삶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우리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놀라움을 무시함으로써 인생의 종말이 허무한 것으로 망쳐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허망하고 천박한 것이 되지 않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룩해 놓았다는 자부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now and here)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의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세계 10대 경제강국',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과와는 극단으로 대비되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드리운 그림자 말이다. '동방예의지나라'를 무색케 하고 있는 세계 제1의 낙태율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을 포함한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이혼율도 1, 2위로 치솟고 있다는 통계가 인구감소의 두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권력과 부, 명예와 유행, 그리고 쾌락이라는 5대 우상은 현대인을 유혹하여 추락시키고 있다. 권력이 무엇인데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돈이 무엇인데 형제간의 인륜을 저버리게 하고, 명예가 무엇인데 박사학위 때문에 성직자를 교수를 정치가를 불명예로 추락시키고, 유행이 무엇인데 성형수술로 사람들의 값진 제 모습을 빼앗아 버리고, 쾌락이 무엇인데 인간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윤리와 도덕의 세계를 파탄시키고 있던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가치 전도가 가져다 준 인간성 상실의 비극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시급히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는 가치관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야만 선진국의 꿈, 남북통일의 꿈, 민주주의 이상,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참다운 부국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1분에 43 단어를 타 이핑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요트를 운전하고,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다. 나는 평생 도전하는 사람이고 싶다. 도전할 때마다 믿음의 날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야호!"

중단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계를 날고 있는 기적의 인간 닉 부이치치(Nick Vujicic)의 생명력 넘치는 인생승리의 노래이다.

"어린 시절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고,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았고,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나의 절망적인 삶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도전하지 않겠는가."

세계 제1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가족들과의 삶을 회피하며, 독신생활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기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 닉 부이치치는 어떤 인간조건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런 도전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 제 아무리 묘안을 찾아봐도 형편 없는 우스꽝스러운 외모를 가릴 수 없다. 표적이 그려진 옷을 입고 못된 아이들에게 그의 심장을 겨냥해 뾰족한 다트를 던지지만 기다려야 하는 불행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다.


나이 들어 어른이 된 뒤에는 가슴에 꽃히는 상처가 되는 괴롭힘을 흘려듣는 법(지혜)을 터득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 못된 아이들에게 한참 시달릴 때는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야 했고, 미수에 그쳤지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할 만큼 불행의 극치를 경험했음을 그가 펴낸 책 <허그>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인생이란 고해와 같은 것이다.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생(苦生)'이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인생(人生)'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의 탄생, 공자의 탄생, 석가모니의 탄생도 결국은 극한의 인생고(人生苦)를 겪으며 극복함으로써 위대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성인이 된 닉 부이치치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대중강연과 복음 전도사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는 발칸반도의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슈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8살이 된 이후로 인간 이하의 무시와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직자인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의 양육을 받는 등 부모의 교육철학 덕분엔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까지 지냈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대학에 진학해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부이치치는 현재 Life Without Limbs(사지없는 삶)이란 기관을 설립하여 대표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스케이트, 서핑, 드럼연주, 골프, 컴퓨터 등 정상인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다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데 도전한 그는 15세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또한 19세에 첫 연설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 MBC 'W'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기도 했다.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 가는 닉 부이치치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은 희망을 잃고 비전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서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닉 부이치치의 절망적인 인간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해 키요시라는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는 부인 카나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인생에 대한 믿음의 날개로 멈출 수 없는 삶의 비상을 즐기고 있는 닉 부이치치와 아내 카나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자기만이 간직한 고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시련에 도전하자. 7~8월 한여름을 보내는 Better People Better World(좋은사람 좋은세상) 독자들 과 함께 닉 부이치치를 존경하며 그의 값진 인생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계열사에 대한 지원과 형사상 죄책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15일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다른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다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의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하여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재벌그룹 범죄, 관용 아닌 엄격한 법 기준 적용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현재 상고 또는 항소를 제기하여 강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유죄 확정을 전제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종전과는 달리 재벌그룹 오너의 범죄에 대하여 관용이 아닌 엄정한 형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07. 4. 27. 양형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달라진 법원의 양형실무를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등의 요구를 법원이 재판실무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CJ 그룹의 비자금 사건 외에도 향후 재벌그룹이 연관된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을 가능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종전의 실무를 보면 재벌 입장에서는 그룹 내 소속 회사들을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파악하여 전체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구조조정 등을 시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거나 애써 이를 외면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재벌 2세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에게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그룹 내의 일감 밀어주기 등을 강행함으로써 편법적 증여 내지 경영권 승계를 도모해 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기업의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정부규제에 한계성이 노출되면서 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이제 시대정신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인의 특별한 각성이 요망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새로운 시대정신

원래 주식회사는 설령 그것이 1인 주주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 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 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계열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그룹 내부 구조조정은 그룹 전체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룹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룹 내부에서 성공한 구조조정에 대해 처벌을 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최근 기업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의 무리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일찍이, B 회사가 A 회사의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法人格)을 지니고 있는 이상 A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인이 A 회사 소유의 자금을 B 회사의 필요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을 구성하고, 나아가 자력이 없는 B 회사를 위하여 A 회사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기준

한편, '경영판단의 원칙'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을 한 경우, 단순히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영미법(英美法)상의 판례로서 정립된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은 아래와 같다. 즉,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익의 의사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 자체가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배신적 행위

를 처벌하고 있고, 배신적 행위예의 해당 여부 자체가 다소 모호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판단을 위촉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경제계의 강한 비난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회사법이나 민법 등의 기본법이 정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준법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천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운용하여 온 사례가 많고, 동일한 재벌그룹 내의 소속 회사들의 재산을 하나로 평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룹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또는 자금지원 등을 단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인격체이고, 동일한 재벌그룹 내의 소속 회사들의 인격도 법률상 별개로 인정되고 있으며, 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해관계의 다양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투명성 확대가 시대정신의 하나로서 등장한 이상 관련 법리의 정확한 이해와 실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본에 충실한 기업의 준법 경영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노만경 변호사**

1964년 생으로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판사에 임용된 후 21년간 청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3월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전담 재판장으로서 사회 각종 현안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및 중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박찬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321쪽

지금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당신에게 전하는 박찬호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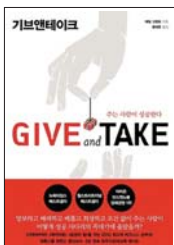
시속 161km의 강속구를 던져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후 포효하던 대한민국의 첫 번째 메이저리거 '박찬호' 그의 모습에 우리는 IMF의 시름을 잊고 희망을 품었다. '박찬호'라는 이름은 한국인에게 자긍심이자 자존심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영웅의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상'과 '부진' 속에 우리는 영웅을 서서히 잊기 시작했지만 박찬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떠나야 할 때가 온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가 끝나야,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도 당심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Samsung Way 삼성 웨이
송재용 · 이경목 지음 | 21세기북스 | 408쪽

전 세계 기업과 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삼성 경영의 모든 것!

한 기업이 나름의 독특한 경영방식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높은 성과를 낼 때 우리는 그들만의 경영방식 혹은 경영시스템을 '웨이(way)'라고 부른다. 1938년 창업 이후, 국내 최고기업, 글로벌 일류기업의 자리에 오른 삼성은 특히 지난 20년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왔다.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출간된 이 책은 삼성식 경영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이자 오랜 시간 경영학자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온 학술적 연구 성과물이다. 저자들은 1993년 신경영 개혁 선포 이후 지난 20년 동안의 삼성식 경영을 '삼성웨이(SAMSUNG WAY)'라 칭하고, 삼성 웨이의 근간이자 삼성 경쟁력의 원천인 이견희 회장의 '신경영'을 경영학적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했다.



Give and Take
애덤 그랜트 지음 | 윤태준 옮김 | 생각연구소 | 464쪽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가 밝히는 '이기는 양보'의 힘!

세계적인 조직심리학자이자 31살에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된 저자는 사람들의 성향을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테이커, taker), 받는 만큼만 주는 사람(매처, matcher), 조건 없이 주는 사람(기버, giver)으로 나누고, 기버들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자신의 일을 못하는 무능력자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보통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기버, 경쟁

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테이커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예외의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 강력한 테이커일 수 있다. 같은 기버라도 어떤 이는 만만한 호구로 전락하는 반면 어떤 이는 당당하게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비밀이 책 속에 녹아있다.



니얼 퍼거슨 위대한 퇴보
니얼 퍼거슨 지음 | 구세희 옮김 | 21세기북스 | 224쪽

전 세계 기업과 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삼성 경영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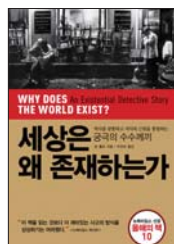
'법치주의와 적'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BBC 라디오 4에서 방송된,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 니얼 퍼거슨의 '리스 강연'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세계사적 전환의 시점에 그가 내놓은 미래 예측은 국내외 언론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았으며,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로도 유명하다. 저자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네 개의 블랙박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교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1인1욕
표만석,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지음 | 경향미디어 | 248쪽

'1일1욕'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체온에 무심하지 마라! 이 책은 <체온 면역력>의 저자 아보도오루 교수를 비롯해 열로 몸을 살리는 여러 의료진을 만나 보고, 왜 우리가 열을 올리면 면역력이 증가하는지, 나아가 우리 몸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짐 홀트 지음 | 우진하 옮김 | 21세기북스 | 512쪽

탐정소설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철학 여행!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저자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를 만나면서 존재의 수수께끼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며 여정을 시작한다. 그는 존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철학자와 신학자, 분자물리학과 우주철학자, 그리고 신화학자와 미국의 유명 소설가까지 만나 대화를 하면서 생각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 책은 이론이나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닌 인터뷰를 통해 존재론적 수수께끼를 풀어감으로써 생동감을 더했다. 자연스럽게 맛따뜨리는 세상 풍경과, 위대한 철학자들의 고집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 등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밝히려는 질문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전시회>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후기 인상주의 대표화가이자 이상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한 최후의 인상파 화가 고갱. 그의 회화는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나아가 추상에 이르는 20세기 미술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는 고갱 예술의 특징을 양분하는 브르타뉴 시기(Bretagne 1873-1891)와 폴리네시아 시기

(Polynesia 1893-1903)의 대표작품을 모아 고갱 예술의 발자취와 의미를 심도있게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회고전이다. 60여 점의 진품 작품들은 그의 삶과 예술이 남긴 의미와 감동을 바로 눈앞에서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일정 : 6월 14일(금) ~ 9월 29일(일)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문의 : 1588-2618



<전시회> 알폰스 무하전

아르누보의 대표 작가 알폰스 무하의 회화, 판화, 드로잉 및 사진과 소품을 포함한 그의 대표 작품 235점이 엄선되어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된다. 본 전시는 아르누보 양식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하고 한국 관람객들에게 인상파 위주의 전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알폰스 무하에게 체코 국민화가라는 칭호를 선사해준 슬라브 서사시 연작을 통해 무하의 깊은 민족애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정 : 7월 11일(목) ~ 9월 22일(일)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문의 : 1666-2775



<연극>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우리의 소리, 젊은 판소리 '사천가'가 장기 공연으로 돌아온다.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등 해외에서의 끊임 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 이자람과 함께 소리꾼 이승희, 김소진이 합세하여 세 명의 소리꾼이 약 한달 간 최장기 공연을 꾸려갈 예정이다. 매력적이지만

어쩔지 멀게만 느껴져 왔던 우리 음악 판소리,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장기공연이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간 : 7월 9일(화) ~ 8월 4일(일)

장소 :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문의 : 1588-5212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 오네긴

2009년 유니버설발레단이 국내 발레단 최초로 공연하고 2011년 뜨거운 앵콜 요청 속에 다시 한 번 '오네긴 열풍'을 일으킨 화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첫 눈에 오네긴에게 마음을 빼앗긴 순수한 소녀 타티아나와 그녀의 고백을 오만하게 거절하는 남자 오네긴의 엇갈린 사랑과 절규를

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예나의 고별무대이자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서희, 로베르토 볼레, 그리고 유니버설발레단 발레스타들이 총출동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정 : 7월 6일(토) ~ 7월 13일(토)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 070-7124-1737



<콘서트> 김창기 2집 발매 콘서트 - 내 머리속의 가시

'동물원'의 싱어송라이터 김창기가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난다. 김창기는 80~90년대 '거리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잊혀지는 것',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널 사랑하겠어' 등 수많은 명곡으로 기억되는 동물원의 멤버이자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을 만든 작곡가이기도 하다. 이번 콘

서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남성의 현실을 대변하는 진솔한 가사가 돋보이는 새 노래들을 만날 수 있어 중년 관객들에게는 음악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힐링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일정 : 7월 19일(금) ~ 21일(일)

장소 : 학전블루 소극장

문의 : 02-763-8233



<음악회> 2013 PEACE&PIANO FESTIVAL

피아노의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한 자리에 모였던 2011년 1회에 이어 2013년 2회 페스티벌은 젊은 피아노 거장들의 폭발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 예정이다. 상상을 깨는 콜라보레이션 무대와 기상천외한 페인팅 피아노 전시 이벤트 등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나고 재미있게

피아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기간 : 8월 17일(토) ~ 8월 24일(토)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문의 : 031-230-3440~2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2013년 6월 26일(수) 대전 유성구청 '제2회 행복 유성아카데미'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사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대전 유성구청(구청장 허태정)과 함께하고 있는 '행복 유성아카데미'는 구민과 공직자의 지식정보사회 교양습득과 평생학습을 돕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유성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6월 26일(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주제로 강연한 안병수 대표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 하였습니다.

오늘날 식품매장은 대형 창고를 방불케 한다. 진열대에 쌓여 있는 수많은 가공식품들. 여기에 패스트푸드, 각종 즉석식품 등을 합치면 가짓수가 백사장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현대인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이들 가공식품은 유감스럽게도 건강 전문가들이 그다지 고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 연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왜 그럴까?

이들 가공식품 문제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그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원료적인 문제다. 잘못된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잘못된 원료는 식품첨가물, 정제 가공유지, 정제당 등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하여 '유해 성분 삼총사'다. 이들 삼총사 성분은 오늘날 '가공식품의 정크(junk)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이 원료군이 식품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들어 있어도 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에 의해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유해원료들이 어린이 주변의 식품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과자·빵,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이 식품들 중 세 가지 문제의 원료군이 없는 제품은 상상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린이 식생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이 삼총사 성분, 즉 식품첨가물, 정제 가공유지, 정제당의 유해성에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린이들에게 유해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 유해 원료군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보자.

유해성분 삼총사 -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문제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워낙 광범위해서다. 그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뇌세포나 신경세포 손상이다. 뇌는 인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다. 문제가 생기면 지적 기능은 물론 행동에까지 이상이 오고, 신체 각 기관의 작용에도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뇌에는 유해물질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쳐져 있다. 조물주의 배려 덕분이다. 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이 보호막이 채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릴 때 식품첨가물 같은 화학물질이 몸에 유입되면 뇌세포는 그대로 그 물질에 노출된다. 그 물질들 가운데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인공감미료를 대표하는 아스파탐을 보자. 어린이가 이 물질을 섭취하면 구성 원료들이 뇌의 시상하부로 침투해 들어간다. 시상하부는 정



교한 기계의 제어판과 같은 곳이다.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인체의 모든 기관을 제어한다. 아스파탐을 구성하는 유해물질들은 뇌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뉴런을 파괴한다.

이때 만일 체중을 조절하는 뉴런이 손상되었다고 치자. 그 어린이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춘기를 관리하는 뉴런도 손상될 수 있다. 왜 요즘 사춘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아이가 있는가? 식품첨가물에 그 답이 있을 수 있다.

인공조미료의 대표선수인 MSG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먹을 때마다 뇌 기능이 교란되고 신경세포가 파괴된다. 처음에 조금 손상됐을 때는 여간해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손상 부위가 커지면 지각기능 이상이나 학습력 저하가 뚜렷이 감지된다. 성인이 되었을 때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빌미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오늘날 식품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수천 가지에 달한다. 이 많은 물질들 가운데에는 틀림없이 아스파탐이나 MSG처럼 뇌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첨가물 관리 규정에는 이 물질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 암이나 비만, 알레르기, 면역력 저하, 성장 억제 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와는 별도다.

유해성분 삼총사 - 정제가공유지

지방(脂肪)에는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다. 좋은 지방은 몸에 유익한 필수지방산이 많은 지방을 말한다. 반대로 나쁜 지방은 '해로운 물질 1호'라 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산이 많은 지방이다. 트랜스지방산 외에도 여러 유해물질들이 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트랜스지방산과 유해물질들이 어린이들에게 특히 더 해롭다는 사실이다.

원래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구성인자로서의 기능이다. 뇌를 비롯한 인체 각 세포는 물론 효소나 호르몬 등 생리활성물질의 원료로 지방이 사용된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지방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식단을 보면 어린이아이 음식일수록 지방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여기서 '필요한 지방'이란 물론 필수지방산을 말한다. 필수지방산 중에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오메가3지방산이다.

문제는 트랜스지방산을 비롯한 유해 물질들이 필수지방산 결핍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식품에 트랜스지방산이 들어 있으면 필수지방산, 특히 오메가3지방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사 소량 잔존한다 해도 그나마 트랜스지방산이 이용을 방해한다.

왜 요즘 들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가. 왜 아토피가 '신종 어린이병'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가. 왜 요즘 아이들이 체격은 크지만 몸이 허약한가. 왜 면역력이 약한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정제가공유지의 트랜스지방산과 각종 유해 물질에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 아울러 그 원죄는 트랜스지방산으로 오염돼 있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가공식품에 있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이를테면 과자, 빵, 케이크, 튀김류 등에 유독 그 해로운 물질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트랜스지방산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정제가공유지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산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되어 있거나 다른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인공경화유는 트랜스지방산이 '완전 제로'라 해도 해롭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해성분 삼총사 - 정제당

끝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원료군이 정제당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설탕, 물엿, 그리고 최근 사용량이 부쩍 늘고 있는 과당, 포도당 등 이른바

정제당의 굴레를 쓰고 있는 이들 당류가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다. 이 물질들의 폐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만 문제를 초월한다.

일단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입맛의 왜곡'이다. 정제당의 강한 단맛에 빠지게 되면 자연이 주는 담백한 맛, 온화한 맛은 이류, 삼류의 맛으로 전락한다. 어린이들이 나쁜 식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제당의 단맛이다.

입맛의 왜곡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중독' 현상이다. 정제당이 남용된 정크푸드가 일종의 중독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속설이지만 정제당 자체가 몸 안에서 직접 중독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론은 이렇다. 정제당을 탐닉하면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저혈당은 일종의 비상사태이므로 우리 몸은 이 현상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반작용이 생긴다. 이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량 생성된다. 저혈당 증상이 진정되고 나면 아드레날린은 '아드레노코롬'으로 변한다. 이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약의 유효성분인 메스칼린과 같은 물질이다.

정제당을 고지방 식품에서 섭취하면 또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고지방 고당분 사료를 투여하자 '오피오이드'라는 유전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이 유전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 유전자가 감소하면 강한 자극에만 반응한다.

그 결과는? 모르핀이나 헤로인을 투여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 현상은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고, 어린 연령층에서 더 심각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되도록 정제당의 단맛을 가르쳐주지 말아야 할 이유다.

어린이들은 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식별력이 거의 없다. 맛있고 예쁘고 값싼 게 최고의 제품이다. 초등학교 주변을 늘 맴도는 각종 정크푸드들, 정체불명의 저급 수입식품들, 그 제품들 속에 들어 있는 '유해 삼총사 성분'은 늘 그들의 건강을 겨냥한다. 그 유해성은 이미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만 아동의 증가, 아토피 창궐, 시력 저하, 사춘기의 지연영화, 영구치 결손 등에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정서불안, 학교폭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자연의 섭리가 인간에게 보내는 하나의 경고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바람직한 식생활의 길

인체는 60~100조 개에 달하는 많은 세포들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식생활이란 무엇인가? 각 세포에 유해물질이 접촉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씩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식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예를 들어 감자 식품을 생각해보자. 삶거나 구운 감자 속에는 해로운 물질이 없다. 대신 탄수화물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 자연이 제공하는 수많은 영양분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제2의 영양분인 섬유질도 유실될 이유가 없다. 이런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몸 안의 효소, 호르몬 등이 편안하게 일할 것이다. 수많은 세포들도 흡족하게 생명활동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나 감자를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칩으로 가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공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유익한 성분들은 파괴되거나 유실된다. 또 감자전분이나 감자가루로 가공하여 과자나 빵 등을 만든다면 그 제품에는 보통 여러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왜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생활에 경종을 울리는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되도록 정제당 대신 비정제당을 사용하자. 비정제당이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액을 그대로 졸여 만든 것이다. 아울러 조청, 천연꿀 등도 비정제당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또한 인공경화유가 사용된 식품은 배제하자. 굳은 기름의 부드러움을 즐기고 싶다면 천연버터가 사용된 식품을 선택하자. 버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로운 기름이 아니다. 식용유는 정제유가 아닌 압착유가 돼야 한다.

식품첨가물도 마찬가지다. 맛을 내기 위해 인공조미료나 향료가 사용된 것은 일단 자격미달이다.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맛을 낸 식품을 찾아보자. 꼭 해로운 색소를 써야만 색깔을 낼 수 있을까? 독성이 있는 보존료를 써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자연 속에 정답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바야흐로 웰빙 시대다. 웰빙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올바른 식생활이다. '유해 삼총사 성분'이 배제된 식단, 그래서 자연의 훈이 최대한 살아 있는 식단, 그런 식단 속에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비밀 코드가 들어 있다. 어린이 식단의 경우 특히 그렇다. **KDI**



● 안병수 대표

1956년 생으로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한 제과회사에 근무했다. 퇴직 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1개국을 여행하며 식문화를 연구한 뒤 후델 식품건강교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내 아이를 해치는 맛있는 유혹 트랜스지방> 등의 저서가 있다. 2006년 환경재단이 뽑은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었다.

진정으로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이 정부 들어서도 식지 않는 느낌이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어쨌든 선의의 목적에서 입안된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동반성장과 상생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은 2005년쯤이며, 이것이 확고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10년 말부터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반성장에 관한 우리의 논의도 제법 역사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갑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보면 동반성장에 관한 우리의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씁쓸함을 느낀다. 주지하듯이, 갑을 문제의 원인은 상대적 약자인 '을'에 대하여 '갑'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시해 온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동반성장이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삶'에 상반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여전히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동반성장을 소리 높여 외쳐온 우리의 목소리가 실은 공허한 외침이었거나 가식이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갑을 문제를 뿌리 뽑고 진정으로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제도 개선에만 매달려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의식이다. 그러면 의식은 또 어떠하여야 할까? 답은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 한 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거리제한과 같은 규제 조치를 백번 취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갑을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이 우리에게 결코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일상 속에서 늘 추구하며 살아온 삶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공부한 <논어>를 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끼치지 말라"는 경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서게 하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해주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권고도 등장한다. 소극적 자기절제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타인배려까지 요청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선비정신은 바로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근간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선비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갑을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상대와 타인의 존경을 점차 받게 되어 스스로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모든 경제활동에 임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인 오래오래 지속적인 성장발전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시절에 경주 최부자집은 근 400년간 12대 만석꾼 살림을 일구었다.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최부자집은 만석 이상 재산을 늘리지 말고, 자손들의 벼슬을 진사까지로 제한하고, 집안 식구들도 평소 허름한 무명옷을 입게 할 만큼 자기절제에 철저했다. 뿐만 아니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고, 백리 이내 굶는 사람이 없게 하며, 지나가는 손님(과객)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타인배려의 탑을 꾸준히 쌓았다.

최부자집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자기절제와 타인배려의 선비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훌륭하고 존경스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진대 큰 성취와 영원한 발전을 원하는 조직의 리더일수록 앞장서서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사회에 어찌 갑을 문제가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김**



● 김병일 원장

1945년 생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 행정학 석사, 미국 USC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사회에 선비정신 전파와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전통문화유산의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정신적 좌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전국민의 문화예술 사랑과 아름다운 미술품 갖기 생활화”

강남 명품 한류 복합 문화예술광장 갤러리 G아르체
대한민국의 대표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강남역”
새로운 강남style의 명품Art& Culture 문화예술 광장을 만나보세요

장소대관

기업, 단체의 각종세미나, 교육, 파티등
신제품 전시홍보, 출판기념회, 각종이벤트 행사
미술전시, Live공연, 체험행사



대한민국 대표 작가 ‘천경자 화백’ 그림 & 상품 상설전시 판매

최고의 작가와 최우량기업(단체)과의 만남

사랑하는 이에게 미술품을 선물 하세요
결혼 기념일, 승진, 이전등



갤러리 & 북 카페

유명작가의 작가 작품 상설 전시
커피로 그린 그림, 아트라떼의 문화 카페



주) 예술과여행*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1-1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3층 30호 갤러리아르체

TEL : 02-3280-4488

FAX : 02-3288-2525

E-Mail : artour4488@hanmail.net / artour4488@naver.com

1등 사회공헌기업, 한국마사회의 행복한 달리기

KRA 한국마사회는 매년 **1조7천억** 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KRA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 기여합니다!

- ▶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재정 기여 _ **1조1,189억원**
- ▶ 농특세, 법인세 등 국가재정 기여 _ **3,340억원**

KRA는 축산농가 및 농어민에게 활력을 전합니다!

- ▶ 축산농가 발전기금 _ **1,835억원** 출연 ▶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_ **109억원** 출연
- ▶ 농어민자녀 장학사업 _ **162억원** 출연 ▶ 농축산 홍보 및 마사진흥사업 _ **187억원** 출연

KRA는 이웃사랑 나눔실천으로 희망을 키웁니다!

- ▶ 사회공헌 기부사업 _ **205억원**
- 정서행동장애 치유를 위한 승마힐링센터 2개소 운영
- 장애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취업교육센터 5개소 운영
- 지적장애 청소년 야간교육센터 6개소 운영
- 매년 전국 농어촌소재 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에 승합차 200대 지원
(2004~2012년까지 총 750대 지원)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